

홍 석 룰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역사교과서 박정희 정권기

경제개발서술과

여성노동문제

동일방직 노동조합사건을 중심으로

2005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역사교육전공

최 윤 아

홍 석 룰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역사교과서 박정희 정권기 경제개발

서술과 여성노동문제

-동일방직 노동조합사건을 중심으로-

2005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역사교육전공

최 윤 아

역사교과서 박정희 정권기 경제개발
서술과 여성노동문제
-동일방직 노동조합사건을 중심으로-

홍 석 룰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4 년 11 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역사교육전공
최 윤 아

인 준 서

최윤아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 문 개 요

1960년대와 1970년대는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한 시기이면서도 민주화를 외면한 박정희 정권의 독재가 펼쳐졌던 시기로 기억에 남아있다. 이 시기에 박정희 정권은 경제개발과 공업화를 급속하게 진행시켜 산업증대와 경제발전을 꾀했다. 급속한 공업화는 공업노동자의 수적 증가를 불러왔고 노동자의 수, 그 중에서도 여성노동자의 수를 대폭 증가시켰다. 대부분의 여성 노동자들은 남성노동자에 비해 매우 낮은 임금과 장시간의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한국의 공업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1960년대, 교회나 야학 등의 영향으로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자의식이 싹트기 시작하면서 생존권 운동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1970년대에 이르러서는 여성노동자들이 노동자 운동의 흐름을 주도해 나갔지만 현재 여성노동자의 역사는 축소되거나 은폐되어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동일방직노동조합운동은 한국 최초의 여성지부장탄생과 여성노동자들로 이루어진 자율적인 노조설립, 회사의 지속적인 노조파괴공작, 자율적인 노조를 지키려는 여성조합원들의 노조 사수운동 등으로 유명하다. 당시의 특수한 정치적·사회적 상황, 여성의 열악한 사회적 위치 등에서 발생한 어쩔 수 없는 한계점들에도 불구하고 동일방직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운동은 자율적이고, 적극적이었다. 여성노동자들은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국가권력, 회사, 사회적 차별에 대항해 싸웠다. 동일방직 노동조합 10여년의 투쟁 과정은 민주노조로서의 역량을 충분히 보여주며 당시의 정치·경제적 상황과 여성 억압적인 상황을 살펴볼 때 그들의 활동력은 대단한 것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현재 쓰이고 있는 한국 근현대사 검정교과서는 학생들에게 현대사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판단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대부분의 교과서에서는 박정희 시대의 경제개발에 대해서는 서술 관점은 각각 다르지만 비교적 상세하게 다루고 있었다. 그러나 1970년대 여성노동운동에 대해 거의 다루고 있지 않거나 아주 미흡하게 다루고 있었다. 정권과 정치경제사 위주의 역사는 거대담론의 역사에 중심과 가치의 우위를 두며 역사에서 힘 없고,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은폐시킨다. 학생들이 분석적 역사관을 획득하고 자율적 역사의식을 기르기 위해서는 현 교과서에 다양한 관점의 자료제시가 추가되어야 한다. 또한 현 교과서의 1960-70년대 노동운동에 대한 서술은 이 시대의 노동운동을 주도했던 여성 노동자들의 운동을 정당하게 재평가해 반영해야만 할 것이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II.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분석	5
1. 박정희 정권기 경제개발 서술 분석.....	5
2. 1960-70년대 여성 노동자운동 서술 분석	11
III. 동일방직 노동조합운동의 배경	15
1. 정치적 배경	15
2. 경제 사회적 배경	17
3. 여성 억압적 사회구조	21
IV. 동일방직 노동조합운동의 전개와 여성노동자 문제.....	26
1. 동일방직 노동조합운동의 전개	29
2. 노조 탄압과 여성문제	38
1) 여성 집행부선출과 남녀 대립을 이용한 회사의 노조파괴	39
2) 성폭력과 폭력을 이용한 노조파괴공작	43
V. 결론.....	47

참고문헌

Abstract

I. 서론

한국에서 1960년대와 1970년대는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한 시기로 남아있다. 이 시기에 박정희 정권은 경제개발과 공업화를 급속하게 진행시켜 산업증대와 경제발전을 꾀했다. 급속한 공업화는 공업노동자의 수적 증가를 불러왔고 그 중에서도 여성노동자의 수를 대폭 증가시켰다.

1960-70년대의 여성노동자들은 남성 노동자들 보다 임금, 근로조건 등에서 매우 열악한 상황 하에 있었다. 그러나 1970년대의 노동운동은 여성노동자들을 주축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운동 역시 소극적이고 근시안적인 성격의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1970년대의 여성운동은 다중의 억압을 경험하는 여성이 중심이 되어 전개했다는 점과 국가적인 탄압 하에서도 꾸준히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더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러나 여성노동자의 역사는 축소되거나 은폐되어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남성중심의 노동자사에서는 여성의 참여와 공헌을 평가절하 하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의 여성 중심적 관점에서 진행된 연구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연구 성과들은 1970년대 노동운동을 분석함에 있어 가장 중심이 되었던 여성노동자들의 운동을 조직력이 부족하다거나,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머물렀다거나, 연대를 이루어내는데 역부족이라고 평가하여 1970년대 여성 노동자 중심 노동운동의 특수성과 역사성을 간과하도록 만드는 경우가 많다.¹⁾

톰슨(E.P.Thompson)은 『영국 노동계급의 형성』에서 계급을 고정된 사물로 보지 않고 역사적 과정, 현상으로 바라보아 사회, 문화적 형성체로 인식하였다. 이는 계급을 좀 더 유연한 개념으로 이해하며, 노동운동사 서술에서 주요 방법이 되는 경제사적인 편중현상에서 탈피하여 정치적·이데올로

1) 김현미, 「한국노동운동의 담론분석을 통해 본 성적제현의 정치학」, 『열린지성』, 1999, 135-136쪽.

기적·문화적 요인을 중요시하도록 하는 방법론적 대안이 되기도 했다. 톰슨의 저작은 이후의 노동운동사 서술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톰슨의 저작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다. 톰슨의 저작에서는 여성장인을 언급하지 않고 남성장인 일반에 포함시켜 서술해버림으로 여성 장인의 역사를 남성장인 중심의 역사로 편입시킨다. 여성주의적 관점의 연구자들은 노동 운동사를 ‘남성노동자 일반의 노동운동사’로 서술할 것이 아니라 여성노동자들을 분리해 서술해야만 그때서야 ‘완전한 노동자의 역사’를 서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대부분의 여성노동자들은 임금, 노동조건 등에서 차별받고, 임신이나 육아에 따른 차별을 경험하기도 한다. 심지어는 고용에서부터 해고에 이르기까지 여성차별적인 사례들은 수없이 많다. 철저한 경제원리가 지배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여성 노동자의 위치는 그 특수성이 분명히 고려되어야 한다. 이는 여성노동자에 대한 서술이 남성으로 쉽게 가정되는 ‘노동자 일반’과의 서술과 분리가 필요한 이유이다. 이런 작업이 더욱 중요한 점은 분명 사회 전반에서 여성 노동의 유용함을 주장하면서도 여성에 대한 차별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있는 현상이 존재하기 때문이며 이 현상은 사회 전반에 걸친 성별 위계구조를 명확하게 드러내게 된다.

동일방직 노동조합 운동은 1970년대 노동조합운동의 여러 측면을 살펴볼 수 있는 동시에 여성 노동조합 연구에 다양한 시사점을 안겨줄 수 있는 사례이다.

동일방직노동조합운동은 한국 최초의 여성지부장탄생, 자율적인 노조설립, 회사와 회사에 매수된 남자사원들의 노조파괴공작, 자율적인 노조를 지키려는 여성조합원들의 노조 사수운동, 노조해체공작에 따른 대량해고와 해고에 저항하여 복직투쟁으로 발전시킨 것으로 유명하다. 당시의 특수한 사회적 상황, 여성 개개인의 사회적 위치, 노동자들의 사회적 지위 등에서 발

생한 어쩔 수 없는 한계점들에도 불구하고 동일방직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운동은 자율적이고, 수평적이며, 적극적이었다.

이 글의 한 축은 이것이다. 동일방직 노동조합운동을 기록한 자료들을 통해 1970년대 여성노동자운동의 원인과 다양한 억압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여성노동운동의 의미와 여성노동자억압에 대해 좀 더 다양한 견해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의 다른 한 축은 현 한국 근현대사 검정교과서의 분석을 통해 이루어진다. 정권과 정치경제사 위주의 역사는 여성, 노동자, 또 다른 소수자의 역사를 매몰시킨다. 그것은 암묵적으로 거대담론의 역사에 중심과 가치의 우위를 둔다. 현 교과서의 문제점 또한 그것을 벗어나지 못한다. 학생 스스로 분석적 역사관을 획득하고 자율적 역사의식을 기르려면 더욱 다양한 관점을 가진 자료와 사료의 제시가 필요하다. 현 교과서는 학생들이 드러나지 않은 역사, 권력에 의해 소외당한 사람들의 역사 또한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당시의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힘은 노동자들에게서 나왔다. 그 중에서도 1960, 70년대 경공업 노동자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여성 노동자들의 희생과 노력은 컸다. 가장으로 생활비를 벌기 위해, 오빠와 남동생을 공부시키기 위해 초과노동을 했던 여성 노동자들의 역사는 어디에도 없다. 1970년대 노동운동은 여성 노동자들에 의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운동에 대해서는 1980년대 노동운동의 과도기적 시기로 지정하거나 아예 맥락을 삭제한 채로 제시된다. 여성의 문제는 쉽게 은폐되고 거대한 문제에 휩쓸려 얘기되지 못하거나 별 것 아닌 문제로 바뀐다. 이는 노동자와 소수자뿐 아니라 여성과 여성 노동에 대해서도 무관심한 현 교과서의 서술과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다.

2001년, 동일방직 탄압에 중앙정보부가 개입되었다는 증언²⁾이 발표되었

다. 또한 같은 해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되었다. 최근의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에는 동일방직 사건이나 YH무역의 시위사건 등의 사진이 실리기도 했다.³⁾ 동일방직 노동조합운동을 비롯한 1970년대 여성노동자 중심의 여러 노동운동은 새롭게 평가받고 있으나 교과서에 어떻게 반영되고 서술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이 글에서는 동일방직 사건을 중심으로 1970년대 여성노동자운동의 의미와 교과서에 나타난 1970년대 여성노동자에 대해 살펴보고 역사 교과서에서 노동자와 여성노동자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방법을 제시해 볼 것이다.

짜임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근현대사 교과서의 박정희 정권기 경제개발 서술 부분과 같은 시기 노동자 운동에 대한 내용을 분석한다. 3장에서는 동일방직 노동조합운동이 일어난 당시의 정치·경제·사회 배경을 살펴보고 당시 노동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살펴볼 것이다. 4장에서는 동일방직 노동조합운동을 통해 여성노동자의 문제를 분석, 동일방직 여성 노동자운동과 1970년대 노동자운동이 한국 교과서에서 어떻게 서술되어야 하는지를 제시해 보도록 하겠다.

2) 우리나라 민주노조운동의 기폭제로 꼽히면서도 그동안 민주화운동으로서의 성격을 증명하는데 어려움을 겪던 동일방직 노조운동이 최종선씨(54미국거주전직 중앙정보부원)의 증언을 통해 결정적인 돌파구를 찾게 됐다. 최씨의 증언은 당시 노조원들에 대한 이른바 똥물 투척사건을 주도 내지 배후 조종한 혐의를 받는 섬유노조의 조직행동대가 중정 2국(보안정보국) 경제과의 사주로 이 사건에 개입했고 노조원들의 단식농성 등으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면서 결국 124명 농성자 전원을 4월1일 해고하도록 조치했고 노조도 새 집행부를 구성토록 했다고 밝힌 것.

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심의위측은 이 같은 최씨의 증언을 전해 듣고 노조 활동에 중정 등 관계 당국이 개입했으며 해고과정까지 주도했다는 증언은 동일방직 노조문제의 성격 규정에 결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동아일보』, 2001.03.18일자.

3) 김한중외, 『한국근현대사』, 금성출판사, 336쪽. YH무역 시위사건과 함께 실려 있다.

II.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분석

1. 박정희 정권기 경제개발 서술 분석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는 각 출판사에서 역사교육 전문가인 필진에 의뢰하여 집필한다. 집필이 끝난 교과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검정을 의뢰해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만이 각 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택, 사용된다. 7차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학생들은 고등학교 2,3학년부터 심화선택 과목을 선택해 공부하게 되는데 심화선택 과목 중 역사과목 계열에는 한국 근현대사와 세계사의 두 과목이 있다.

2004년 검정을 통과한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는 6종으로 각각 두산 출판사, 대한교과서, 중앙교육진흥연구소, 금성출판사, 법문사, 천재교육에서 출판된 것이다. 그러나 검정을 뒤늦게 통과한 법문사와 천재교육의 교과서는 소수의 학교에서만 선택되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검정 교과서 중 많이 선정되어 사용되고 있는 두산 출판사, 대한교과서, 중앙교육진흥연구소, 금성출판사의 4종을 중심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다.

박정희 정권기의 경제개발 부분은 4종의 교과서 모두 “IV-4 경제의 발전과 사회·문화의 변화” 단원에서 다루고 있다. 각 교과서의 대단원 제목은 모두 같으나 소제목과 내용은 다르게 구성된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기의 경제개발을 다룬 소단원의 제목은 “2. 경제 성장과 자본주의의 발전”으로 4종 모두 같거나 매우 유사하다.

먼저 두산 교과서의 박정희 경제개발 서술에 대해 분석해 보기로 하자.

1961년에 5·16 군사정변으로 집권한 군사정부는 경제정책의 중점을 종전의 안정우선정책으로부터 성장우선정책으로 전환하고, 장면 내각 때

수립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정하여 1962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였다. 이후 박정희 정부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4차까지 계속 추진하여 경제 도약에 성공하였다.⁴⁾

1·2차 계획기간에는 울산에 공업단지가 조성되고 정유공장을 비롯한 각종 공장이 건설되었으며 마산지역에는 수출자유지역이 만들어졌다. 또 우리나라 경제발전에서 큰 역할을 담당할 포항종합제철공장의 건설이 시작되고 경부 고속국도가 개통되었다. 이리하여 우리나라의 경제는 도약의 발판이 마련되었다.⁵⁾

위에서 인용한 것처럼 두산의 교과서는 1960년대 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을 긍정적으로 평가, 서술하고 있다. 탐구과제를 포함한 박정희 정권의 경제 개발기 서술은 326쪽부터 329쪽까지 4쪽의 분량으로 이어지는데 이 시기 경제개발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328-329쪽의 8줄로 마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경제는 비약적 발전으로 거듭하여 국민의 생활 수준도 괄목할 정도로 향상되었으나, 경제 발전과 함께 부작용도 많이 나타났다. 우리나라 경제는 대외적으로 미국과 일본에 의존하는 형태가 되었고, 경제건설을 위한 외자 도입으로 외채가 크게 늘었다. 또 공업중심의 경제개발로 농촌의 피해가 계속되고 산업 불균형이 심화되었으며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와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도 심해졌다. 노동자들에 대한 저임금 정책이 지속되고 노동운동에 대한 정부의 탄압도 계속되었다. 또한 공업화에 따른 공해문제가 제기되고 도시 빈민층이 형성되었다.⁶⁾

4) 김광남외, 『한국근현대사』, 두산, 2005, 326쪽.

5) 위의 책. 327쪽.

6) 위의 책. 328-329쪽.

7차 교육과정에서 중시하는 탐구과제는 이 단원에 두 가지가 제시되어 있다. 하나는 제 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서문을 제시하고 경제개발계획의 목표를 조사, 분석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박정희 대통령의 중화학 공업육성선언을 제시, 추진되었던 정책을 조사하고 중화학 공업 육성정책의 영향을 파악해보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첫 번째 문제의 경우 이미 앞장에 각 경제 개발계획의 목표를 정리한 도표가 제시되어 있어 사료를 분석하고 스스로 판단해 사고의 폭을 넓히는 탐구연구 활동의 근본목표에는 적합하지 않다. 또한 두 번째 문제의 경우도 학생들의 탐구활동을 촉발시키기에는 지나치게 제시적이며 본문의 내용을 복습하는 것 이외의 효과를 일으키지 못할 것이다. 두산의 교과서는 타 출판사 교과서의 박정희 정권기의 경제개발 서술에 비해 경제성장률과 그 성공적인 결과를 부각 서술하고 있으며 부작용과 그 결과에 대한 서술은 미미한 편이다.

중앙교육진흥연구소의 교과서⁷⁾는 박정희 정권기의 경제개발을 342쪽과 343쪽의 두 쪽에서 다루고 있다. 타 출판사에 비해 적은 양의 서술이다. 중앙교육진흥연구소의 교과서에 서술된 박정희 정권기 경제개발 서술의 마지막 부분을 인용해 보도록 하겠다.

이와 같은 4차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우리 경제는 고속성장과 수출 증대를 이룩하여 국민들의 생활수준은 크게 향상되었다. 또한 신흥 공업국으로 떠오른 우리나라는 외국으로부터 한강의 기적이라는 찬사를 받게 되었다. 한편, 경제 성장의 결과 늘어난 중산층과 근로자는 박정희 정부의 개발 독재에 염증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점차 민주화를 열망하게 되었다.⁸⁾

7) 주진오외, 『한국근현대사』, 중앙교육진흥연구소, 2005.

8) 위의 책, 342-343쪽.

이 인용문의 맨 마지막 문장은 ‘고속 경제 성장의 결과가 민주화 열망을 불러왔다’ 라는 의미로 읽힌다. 또한 중산층과 근로자들만을 지적하며 그들을 민주화 열망의 주체로 상정하기보다는 ‘경제 성장만을 추구하며 민주화를 외면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이 높아졌다’고 서술하거나 경제개발 계획의 부작용과 결과를 보충해 설명하며 왜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생겨나게 되었는지를 서술하는 것이 적합할 듯싶다.

중앙교육진흥연구소의 교과서 서술에는 박정희 정권기의 경제개발의 영향, 결과에 대한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다. 위에서 인용한 내용처럼 ‘한강의 기적’등의 외부 평가만으로는 이 시기 경제개발의 실과 허에 대해 파악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경제 성장률 추이, 수출입 도표를 통해 우리 경제의 특징을 조사해 보는 탐구활동⁹⁾은 고속 성장과 수치상으로 명확한 발전이라는 결과 이외에는 다른 결과나 영향을 생각할 수가 없다.

대한교과서의 교과서¹⁰⁾는 타 출판사의 교과서에 비해 특이한 구성으로 되어 있다. 그 시기에 해당하는 역사적 내용을 서술하기보다 그 시기에 대한 물음을 던지고 학생들이 자료 글, 그림과 표, 그래프 등을 통해 스스로 분석하고 자연스럽게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한 급속한 경제발전의 내용과 그 경제 발전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할 수 있도록 다량의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¹¹⁾ 그러나 학생들이 1960-70년대의 경제개발과 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 정책을 연결해 사고하고 학습할 수 있는 단서가 많이 부족한 점, 박정희 정권기의 경제개발 정책의 자세한 내용 등을 찾아보기가 번거롭고 힘든 점등은 아쉬운 부분이다.

9) 위의 책, 343쪽.

10) 한철호외, 『한국근현대사』, 대한교과서, 2005.

11) 일례로 300-301쪽에서는 비약적인 경제성장의 원인에 대해 제시하지 않은 채로 열린 과제를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그 원인을 생각해볼 기회를 주고, 302-303쪽에서는 국제수지 및 외채의 변화를 나타낸 표를 제시해 고도성장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위의 책, 300-303쪽.

금성출판사의 교과서¹²⁾는 현재 가장 많은 수의 학교가 채택하고 있는 교과서이다. 많은 학교가 선택한 교과서답게 적당한 분량의 서술과 설명, 다량의 자료와 짜임새 있는 연구 활동이 제시되어 있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금성출판사의 교과서는 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 정책에 대해 비판적 입장에서 서술하고 있다.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2~1966)과 제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7~1971)을 거치면서 한국의 경제는 ‘한강변의 기적’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외형적으로 눈부시게 발전했다. (중략) 그러나 이 사이 한국의 경제는 더욱 외국에 의존하게 되었다. (중략) 저축률은 증가했으나 필요한 자본에 미치지 못해 외국 자본을 더 도입해야만 했다. 이에 따라 외채도 급속하게 늘어났다.¹³⁾

1970년대의 공업화 정책에 따라 농수산업은 더욱 침체되었다. 당시 중화학 공업은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할 뿐 아니라 공해 등의 문제로 선진국에서 쇠퇴하는 분야였다. 또한 각종 기계나 기술을 일본에서 도입하고, 공장을 일본자본으로 건설함에 따라 한국경제는 자본과 기술에서 미국뿐 아니라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커져 갔다.¹⁴⁾

금성출판사의 교과서는 앞에서 살펴본 두산 출판사와 중앙교육진흥연구소의 교과서 서술과는 매우 다른 입장이다. 박정희 정권기의 경제개발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박정희 정권기 경제개발정책의 문제점을 다룬 부분이 더 많다.

연구활동에서는 재벌의 성장 방법과 재벌의 사회적 배경, 재벌기업의 금

12) 김한중외, 『한국근·현대사』, 금성출판사, 2005.

13) 위의 책, 327쪽.

14) 위의 책, 2005, 328쪽.

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 등을 추론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시한다. 연구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재벌의 긍정적인 역할뿐 아니라 박정희 정권기 정부가 대기업에게 주었던 특혜, 이 시기 정치와 경제의 연관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볼 수 있다.

살펴본 것처럼 각 교과서의 박정희 정권기 경제개발 서술은 모두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 4종의 교과서가 모두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 비약적인 경제 성장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 졌고 그 경제성장을 이루어내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자유를 반납하고 일했던 사람들은 누구인가의 문제이다. 이것은 정치권력의 관점과 경제 관점에서만 역사를 바라보고 해석하는 방식의 역사 서술에서 가장 쉽사리 간과하는 부분이다. 정치와 경제의 역사도 중요한 것이지만 역사를 바꾸어 나갔던 많은 잊혀진 사람들의 역사 역시 중요하다.

장기적인 견지에서 보았을 때 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정책은 대외의존도의 증가와 외채의 증대, 왜곡된 산업구조를 가져왔다. 그러나 그 시기, 수출의 증대와 국민소득의 증가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특히 노동집약적 수출산업의 증가는 경제성장의 가장 큰 요인이 되었다. 이는 당연히 낮은 임금의 노동력을 제공했던 기술자와 노동자들이 있어야만 가능했다. 비싼 임금과 짧은 노동시간으로는 수출이나 상품생산에서 경쟁력을 획득할 수 없었던 것이다. 더구나 1960-70년대, 남성에 비해 낮은 임금과 낮은 임금을 보충하기 위해 긴 시간 일하는 것으로 주목받았던 여성노동자들은 더욱 열악한 노동조건하에 있었다. 여성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에 대한 개선의지는 생존권 보장 운동으로 시작해 1960-70년대 노동운동을 이끌어 나가게 되었다.

2. 1960-70년대 여성 노동자운동 서술 분석

1970년대 노동운동은 한국 근현대사 4종 교과서의 “IV-4 경제의 발전과 사회·문화의 변화” 단원에서 다루고 있다.

두산 출판사의 교과서¹⁵⁾는 단원의 334-335쪽에 걸쳐 ‘노동운동과 여성운동’이라는 소단원으로 노동운동과 여성운동의 전개에 대해 다룬다.

정부의 탄압을 받으면서도 노동자들의 저항과 노동운동은 계속되었다. 청계피복노조와 동일방직노조등을 비롯한 민주노조들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였다. 민주노조운동이 활성화되면서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수가 계속 증가하여 1979년에는 100만명을 넘었다.

참고자료로는 전태일의 편지가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다른 교과서와 비교해 보았을 때 수록 내용은 상대적으로 적다. 또한 국가권력 하에 있던 노총과 산업별 노조에 대한 설명이 없어 노동조합에 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민주노조운동이 여성 노동자들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서술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대한교과서에서¹⁶⁾는 교과서 306-307쪽에서 비교적 자세한 자료를 수록하고 있다. 단원 ‘탐구활동2’에서 주당 노동시간 그래프와 “박정희 유신체제의 몰락을 재촉한 YH무역사건”이라는 제목 하에 YH무역사건의 개요를 간추려 실었다. 그러나 여성노동자들에 의해 주도된 1970년대의 노동운동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가 없다.

중앙교육진흥연구소¹⁷⁾는 노동자운동에 대해서 354-355쪽에서 비교적 상

15) 앞의 책, 334-335쪽.

16) 앞의 책, 306-307쪽.

17) 앞의 책, 354-355.

세히 다룬다. 1970년대 여성노동자에 대한 내용만을 살펴해보면,

동일방직 공장여성노동자들의 노동운동은 노동문제를 사회 문제화 시켰으며, YH무역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운동은 유신체제의 몰락에도 영향을 끼쳤다.(하락)

노동운동에 대한 내용은 두 장에 걸쳐있으며 탐구활동에서는 1970년대의 노동운동과 1987년 이후의 노동운동을 비교해보도록 되어 있다. 문제의 내용과 자료로 보아 1970년대 근로조건과 임금투쟁에서 1980년대 민주화로 바뀌어간다는 대답을 유도하고 있다.

한국근현대사 과목을 선택하는 고등학교의 약 70%가 채택하고 있다는 금성출판사의 노동관련 서술을 인용해 보면,

1970년대 들어 노동운동은 점차 활성화 되었다. 여성노동자를 중심으로 노동자의 생존권보장을 요구하는 투쟁이 늘어났으며 노동조합의 설립이나 민주화 운동이 활발해졌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여성 산업 노동자의 비율은 줄어든 반면, 남성노동자는 크게 늘어났다. 이에 따라, 대규모 기업이나 지역을 중심으로 노동조합이 결성되고 노동운동이 활발해졌다.

금성출판사의 노동운동관련 서술은 1980년대 남성노동운동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대부분의 교과서에서는 노동운동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1970년대 노동운동이 촉발된 계기나 여성노동자들이 주축이 되어 노동운동을 주도했다는 사실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1970년대 노조 운동을 주도해 이끌어 나갔던 세력은 다름 아닌 여성노동자들이었다. 회사

와 국가는 더 많은 생산물을 만들어내게 하기 위해 그들을 ‘산업건설의 역군’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여성 노동자들에게 보상되는 것은 더 많은 부가 노동과 낮은 임금이었다. 여성노동자들이 스스로의 권익을 찾기 위해 나섰을 때 국가와 언론과 상급노조는 그들을 ‘빨갱이에게 속아 빨간 물이 든 독하고 무식한 여공’들로 매도했다. 고도성장의 주역인 여성노동자들에게 붙여진 명칭은 그 어떤 것도 여성노동자들 스스로 붙이려 한 것은 아니었으며 그 명칭들 안에는 감정적이고 수동적이며,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 사고하고 행동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편견이 들어있다.

현재에도 1970년대의 여성 노동운동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힘없고, 연약하고, 가난한 여공들이 일으킨 산발적 노사분규’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 1980년대의 남성중심의 노조운동에 비해 분산적이고 경제주의적이라서 한계점을 지닌다는 1970년대의 여성운동에 대한 시각은 현 교과서에 그대로 투영되어 있는 것이다.

검정된 4종의 교과서를 살펴본 결과 기존교과서에서 1970년대 여성 노동자운동에 대한 서술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교과서 서술은 당시 여성노동자의 희생과 당시 여성노동자들이 받아야 했던 중첩의 억압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하고 있지 않으며 당시 노동자의 상황과 정치의식의 발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여지 역시 주지 않는다. 당시 노동운동에 대해서도 그 원인을 밝히지 못하고 모호한 서술로 일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노동운동과 그 이후의 민주화운동,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운동에 대한 언급이 필요하다.

1970년대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운동은 현재에 와서도 많은 시사점을 가진다. 1970년대에 비해 열악한 노동환경과 임금은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여성노동자들은 고용차별과 여성차별에 시달리고 있다. 1970년대부터 시작된 여성노동자들의 노동문제 해결노력은 여전히 다른 방식으로 계속되고 있다.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운동은 민주화의 초석이 되었지만 정작 여성노동자들의 위치는 아직도 혁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Ⅲ. 동일방직 노동조합운동의 배경

1. 정치적 배경

1961년 5월 16일, 박정희와 김종필을 중심으로 하는 일부 군인들은 쿠데타를 일으켰다. 군사정권은 반공과 경제 우선 정책을 통해 불법적 권력을 합법화하면서 정권을 강화해 나갔다. 먼저 중앙정보부를 창설해 국가의 모든 정책결정과정에 개입하는 구조를 창출했으며, 이를 토대로 강력한 집권력을 가진 민주공화당을 창당함으로써 권력의 토대를 다져 나갔다. 1963년 민정 이후로 군사정권은 중앙정보부와 민주공화당을 중심으로 정국을 운영했으며, 3선 개헌과 반공 이데올로기, 경제개발계획의 지속 등을 강조함으로써 장기집권을 모색하였다.

군사정권은 경제기획원을 설치하고 1962년부터 제 1차 경제개발 계획을 시작했다. 시행 첫 해에는 실질성장률이 예정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으며 투자가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후 미국의 개입으로 경제개발계획의 목표 수정과 개별사업의 우선순위 등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정과정을 거쳐 수출과 외국 자본을 적극 도입하는 방향으로 경제개발 계획이 추진되었다.¹⁸⁾ 그러나 국내의 낮은 저축수준은 경제개발계획에 필요한 막대한 자본을 충당할 수 없었고, 외국자본에 의지해 경제개발계획을 진행시킬 수밖에 없었다. 1965년 한일회담을 열어 국교를 정상화시키고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과 없이 줄속으로 한일협정이 체결되었다. 경제개발을 위한 차관도입이라는 명목 하에서였다.¹⁹⁾ 3억 달러의 원조와 2억 달러의 공공차관, 3억 달러의 상업차관이 일본으로부터 도입되었다.²⁰⁾ 박정희

18) 김인걸외 편저, 『한국현대사 강의』, 1998. 들베개, 260쪽.

19) 위의 책, 276쪽.

20) 이옥지, 『한국여성노동자운동사』 1, 한울, 2001.

는 또한 1964년 9월부터 1973년까지 한국군을 베트남에 파병하였고 미국은 한국군 파병에 대한 반대급부로 국군을 현대화하고 일부 군수물자를 한국에서 구매하며, 한국기업의 베트남진출과 한국 상품의 수출을 지원했다.

박정희 정권은 경제개발에 모든 가치를 복속시켜²¹⁾ 국가의 통제를 극대화했다. 경제 제일주의 아래에서는 개개인의 자유의 희생, 독재 정치 등은 용인되었고 모순을 드러내려고 하는 개인이나 세력은 철저한 억압을 받았다. 또한 박 정권이 내세운 것은 민족적 민주주의로 불리는 관제적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였다. 박 정권은 경제개발과 민족중흥은 같은 것이며 이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은 한국의 실정에 맞는 민주주의 방식이라며 권위와 국가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하는 국가 지상주의를 고창 하였다. 이를 위해 전통문화 계승이라는 미명 하에 봉건적 지배질서에 기반한 충효이데올로기와 국수주의를 고취시켰다.²²⁾

박정희는 1963년과 1967년 국민투표에 의해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1969년 말 삼선개헌으로 대통령 출마의 길을 열고, 1971년 간접선거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박정희는 영구집권을 위해 1971년 12월,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통과시켰다. 국가보위법은 대통령에게 거의 무제한의 권한을 허용하였다. 또한 1972년 10월에는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활동을 중지시켰으며, 통일주체 국민회의의 신설, 대통령의 권한강화를 골자로 하는 유신헌법안을 공고, 확정하였다. 박정희는 이 헌법에 의거한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선거에서 임기 6년의 대통령에 선출되었고 1972년 12월 유신헌법을 공포해 유신체제가 시작되었다. 유신체제는 대통령의 막강한 권력을 제도화하고, 박정희의 영구집권을 보장하는 체제였다. 박정희는 1979년 사망시까지 대통령직에 머

21) 김인걸외, 앞의 책, 285쪽.

22) 김인걸외, 앞의 책, 286쪽.

물렀다.

2. 경제 사회적 배경

1960년대의 경제개발은 공업화를 통한 경제발전 초기 경공업과 이후 중화학 공업으로 이행, 외자유치, 노동집약적 공업생산으로 수출증대, 정부 주도발전, 선성장 후분배로 요약할 수 있다.

처음부터 관 주도의 경제개발로 시작한 한국경제는 외국자본과 기술을 들여와 저임금으로 단가를 낮춘 제품을 외국 시장에 내다 파는 수출 지향적 발전전략을 채택,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경제개발에 필요한 외자와 기술을 거의 미국과 일본에서 들여와 쓰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주도의 분업체계에 뒤얽혀 애초부터 자립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1960년대 박정희 정권은 제조업에 대해 집중적인 투자를 해 2차 산업이 크게 발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공장노동자의 수가 급격히 늘어났다. 박정희 정권은 저미가 정책을 실시, 대규모의 이농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농민들은 모두 도시 빈민층으로 흡수되었으며 노동 공급의 과잉으로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은 하락하는 것이었다. 196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박정희 정권은 대내외적으로 일대 위기를 맞이하였다. 닉슨 독트린이 한반도에 적용된 결과 발표된 7.4 남북공동성명은 정권유지와 정적 탄압의 도구로 이용되어 왔던 반공 이데올로기를 위협했다. 또한 외자 의존적 경제개발은 원리금 상환난과 기업의 경영부실을 초래했으며 그 결과 자본축적상의 위기가 도래했다. 그리고 성장주의와 저미가 저임금정책은 농민과 노동자의 생활을 파탄시켰다.²³⁾

23) 김인걸외, 앞의 책, 320쪽.

그러나 1962-1966년의 제 1차 경제개발계획과 1967-1971년의 제 2차 경제개발계획기간동안 한국의 경제는 비약적인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제 1차 경제개발계획기간에는 국민총생산이 연평균 7.7%, 제 2차 경제개발계획기간에는 연평균 10.5%의 성장을 이루었다. 1972-1979년 기간 동안에도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9.2%에 이르렀다. 일견 대단한 성장을 한 것처럼 보이는 한국의 경제성장은 내적 발전이 아니라 노동과 자본의 요소투입의 증가에 의한 외적 성장에 불과한 것으로서, 국제 분업체제 속에서만 가능한 것이었다.

1970년대에 들어와 박정희 정권은 경공업중심에서 중화학중심의 공업화 정책을 수립하고 자본을 중화학공업투자에 집중으로 분배했다. 그러나 70년대 산업의 중심이 되었던 중화학공업은 대부분이 공해시설이거나 미, 일에서 들여온 중고설비인 경우가 많았고, 여전히 노동집약적인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었다. 결국 중화학 공업화는 외채의 규모를 더욱 크게 만들었고 기술 수준 역시 중화학공업을 이룩하기에 역부족이었다. 정부는 중화학공업에서 규모의 경제화를 위해 특정 재벌을 집중 지원하여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켰고, 재벌들은 과도한 투자 경제규모가 커지고 공업화가 양적으로 확대되는 동안 한국경제는 기형적인 구조가 정착되었다. GNP의 성장, 수출과 수입의 급격한 성장과 더불어 차관도입액과 원리금상환액, 대외채무잔액등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결국에는 자본과 기술, 시장조건면에서 의존적으로 고착된 것이다. 대내적 산업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었고 경제구조는 왜곡되었다.²⁴⁾

박정희 정권은 평화통일과 국민총화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1972년 10월 유신체제를 성립시켰다. 모든 권력을 대통령에게 집권시킨 종신독재체제인 유신체제에 전국적으로 유신 반대를 외치는 투쟁이 격렬하게 전개되었

24) 이옥지, 앞의 책, 123-124쪽.

한국기독교사회문제 연구원, 『노동현장과 증언』, 풀빛, 1986. 63쪽.

다.

1970년대의 위기상황에서 박정희 정권은 8.3 비상조치를 통해 부실기업을 구제하고 저임금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노동운동을 전력으로 탄압하였다. 1971년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제한했으며, 1972년 유신헌법에서는 노동 3권을 법률적으로 유보하였다. 1973년에는 노동관계법을 개정하여 노사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하면서 노동운동을 무력화시키려고 하였다. 25) 이런 억압적 노동 정책 하에서 기업주들은 부당 노동행위를 자행하며 노동관계법을 위반하였고, 노동자 처우는 악화된 상태에서 노총은 무력화, 어용화 되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하였다. 노동조합의 상부조직의 조직적 지도하에 수행된 운동은 거의 없었으며 산별노조의 차원에서도 힘을 결집하고 실현시키는 역할을 해내지 못하였고, 대부분의 산별 노조 및 지역 지부 등은 오히려 하부조직(지부, 분회)의 조합운동에 대한 억제력으로 역작용 하였다.26)

1960년대의 경제개발은 경제성장과 제조업 구성비의 증가와 제조업 노동자수를 크게 증가시켰다. 제조업 종사자수는 1960-1970년 사이에 427,000 명에서 1,284,000명으로 3배 증가하였다. 특히 1960년대 여성취업자의 증가는 거의 제조업 내에서 이루어져 1960년대 중반부터 이미 45%에 근접하다가 후반에는 더욱 높아졌다. 1960년대 제조업 여성노동자들은 주로 섬유, 의복산업에 집중되어 있었다. 1964년 5인 이상 제조업 사업체에 고용되어 있던 여성취업자의 60%이상이 섬유, 의복업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여성은 섬유 의복산업 총 취업자의 75%를 차지하였다.27)

25) 김인걸외, 앞의 책, 331쪽.

26) 이효재, 『한국여성운동-어제와 오늘』, 정우사, 1989. 266-267쪽.

27) 한국경제연구원, 「한국의 공업화와 노동력」, 『경제활동인구연보자료』, 1990, 272-275쪽.

노동청/노동부 『노동통계연감』, 1978, 36-37쪽.

이옥지, 앞의 책, 89-90쪽. 재인용.

1970년에는 제조업 종사자는 1970년 1,284,000명에서 1978년 3,016,000명으로 2.3배 증가하였고 여성노동자수는 같은 기간동안 423,000명에서 1,192,000명으로 2.8배의 증가를 보였다. 5인 이상 사업체에서 여성 노동자수는 293,000명에서 927,000명으로 3.2배의 증가를 보였다. 제조업 전체에서 여성노동자의 비율 또한 더 높아져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에는 약 40%에 달하게 된다. 5인 이상 사업체에서의 여성노동자 비율은 1976년에는 거의 50%로 최고치에 다다른다. 1970년대 섬유·의복산업에서 여성비는 70%이상으로 지속된다.²⁸⁾

1977년초에 이루어진 노동청의 조사자료에 따르면 제조업 근로자의 60%이상이 월 3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월 23,000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비율도 26%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²⁹⁾ 이 수치는 ILO 통계에서 나타난 1976년도 광공업 평균임금이 51,685원이라는 것과 비교해 볼 때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낮은 것이며, 제조업 근로자중 50,000원 이상을 받는 사람은 13.2%에 불과했다.³⁰⁾ 이 임금논의는 남녀 제조업 종업원의 평균임금을 말한 것이어서 상대적으로 고임금인 관리직, 전문직, 기술직 노동자들까지 포함된다.

또한 여성노동자들은 수출전망 경기침체 등으로 기업규모의 축소와 기업의 도산에 의해 언제 해고당할지 모르는 불안한 노동권 속에서 실업과 생존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었다.³¹⁾

28) 노동청, 『사업체 노동실태조사보고서』, 1964, 1974.

노동청, 『노동통계연감』, 1971, 1977, 1981, 1983.

이옥지, 앞의 책, 125-126쪽 재인용.

29) 한국노총, 사업보고, 1978, 48쪽. 이옥지, 앞의 책, 133쪽 재인용.

30) 이옥지, 앞의 책, 133쪽.

31) 이효재, 앞의 책, 264쪽.

3. 여성 억압적 사회구조

이 장에서는 1960-70년대 여성노동자들의 사회적·문화적 여건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앞으로 살펴볼 여성노동자의 사회적 위치는 힘없고, 수동적인 것으로 여겨졌던 당시 여성노동자들의 활발한 노동운동 참여와 기업별 조합 단위로의 노동운동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동일방직에서 일하고 있었던 여성노동자들은 10대 중후반- 20대 초반의 여성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1970년대 후반 노동운동의 주축이 되었던 여성노동자들의 노조운동을 주도한 장본인들이었다.

신인령³²⁾은 1970년대 한국 노동운동의 연표를 작성해본 결과 그야말로 1970년대의 한국노동운동은 여성이 그 명맥을 유지시켜왔음이 밝혀졌으며, 1970년대 초까지는 남성위주의 운동이 상당히 있으나 1975년부터는 거의 여성들의 운동만이 눈에 띈다고 했다. 노동자들에게 정치적으로 특별히 엄혹했던 박정희 정권시기에도 여성노동자들은 더욱 열악한 환경 내에서 일했으며, 노조운동을 와해시키려는 국가 권력과 어용노조에 대항해 싸웠다. 노동운동이 탄압 받고 산별 노조는 명목상의 노조로 기능을 하지 못하며 고립분산된 상황에서 각 기업별 운동을 펼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여성노동자들은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조직을 만들어 끈질기게 투쟁했다.

여성 노동자가 저임금, 열악한 노동 환경 하에 있게 된 것은 식민지 공업화가 진행되었던 일제 시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가 살펴볼 수 있다. 1920년대 일제는 식민지에서 초과이윤을 얻기 위해 공장을 증설하고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일본인에 비해 훨씬 낮은 임금을 강요하였다.³³⁾ 여성은 식민지 공업화의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방직, 식료품, 화학분야에서 여성의 집중도가 1921년 54.6%, 1930년 95.1%, 1935년에 94.0%로 편중되

32) 신인령, 『여성 노동 법』, 풀빛, 1985, 51쪽.

33) 이옥지, 앞의 책, 36쪽.

어 있어 일제시대부터 성별직무분리는 매우 뚜렷했다.

여성 노동자들은 봉건적, 가부장적 노동통제 안에서 2-3년의 장기 고용으로 신분이 구속되었고, 부모에게 고용의 대가로 몸값을 미리 지불하는 전차금제, 감시, 폭력과 성폭력, 구타 등에 시달렸다. 일제하 여성노동자의 상태는 저임금 장시간 노동의 원형으로 볼 수 있다.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면, 여성노동자의 임금이 남성노동자 임금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남녀 차별적인 임금구조는 식민지 조선뿐 아니라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일본 특유의 노동 관행이었고 식민지 조선에도 적극적으로 이식되었다.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은 10시간 이상 이었고 방직공장의 경우에는 하루 12시간 2교대제의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이 행해지기도 했다.³⁴⁾

여성 노동력이 주목받기 시작한 때는 1960년대 공업화가 진행되면서부터이다. 경공업 위주의 초기 경제개발 단계에서 여성 노동력의 비중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고성장이 이루어진 산업영역에 참여하는 여성노동자들은 대체로 저임금, 저연령, 저학력을 지녔다. 이들 노동자들은 대부분 노동집약적 산업에 종사하고, 섬유, 직물, 가죽, 음료, 전자부품들을 조립하고 연결하는 작업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직종들은 소위 '여성적인 일'이라고 일컬어지는 세밀한 작업을 요하면서 반복적인 단순작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무기술, 단순 보조적인 일, 단조로운 일로 여겨지나 실제 이러한 기술은 상당한 숙련을 요구하며, 세밀한 집중력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이런 기술을 자연스러운 여성의 기술로 인식하고 여성의 기술이기 때문에 수준 낮은 것으로 치부해왔던 것이다.³⁵⁾ 1960년의 제조업 노동자의 격증의 대부분은 임금이 저렴한 여성노동자로 이루어졌다.

34) 강이수·신경아, 『여성과 일』, 동녘, 2001, 60-63쪽.

35) 조옥라, 「가부장적 기업구조와 여성노동운동」, 『서강대 사회과학연구』, 1994. 48쪽.

박정희 정권의 독재적 국가는 국민을 통제하기 위해 가부장적 유교윤리와 충효사상을 고취하였다. 전순옥³⁶⁾은 이에 대해 남한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체계적인 억압을 용이하게 한 구조와 이를 정당화해 온 논리는 유교 이데올로기에서부터 기인하며, 박정희 정권이 유교적 관습과 규율을 강조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단언한다. 유교적 관습과 규율은 여성노동자들을 그들의 남자형제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도록 내 몰고 유교적 가족주의 안에서 아버지가 딸에게 기대하는 것처럼 남자인 공장소유자, 관리, 감독자에게 절대적인 복종을 강요했다.³⁷⁾ 또한 노동자 통제의 수단 중 하나였던 박정희 정권의 공장새마을운동은 '공장일은 내 일처럼, 근로자는 가족처럼'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가부장적 노사관계를 강화시켰다.

구해근³⁸⁾은 한국기업의 가부장적인 태도를 지적한다. 그는 한국기업들에서 발견되는 지배적인 권위형태는 권위주의적이고 가부장제적인 것이라고 했다. 노동자들은 관리자들에겐 완전히 복종적이거나 공손해야 했지만, 경영자들은 노동자들에게 적절한 보호와 개인적인 관심을 제공하는 상호적인 의무에 얽매어 있지 않았다.

한국에서는 유교적 가부장제의 영향으로 성별분업과 여성 차별이 더욱 심화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가족제 생산양식에서 기본 생산단위는 가족이며 여기서 남성이장은 집안의 모든 여성과 손아래 남성들에 대한 노동력의 통제권과 감독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가족 노동력의 조직원리는 성별분업과 남성지배-여성예속으로 요약된다. 남성이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가로 자신뿐 아니라 그의 가족을 벌어들인다는 개념은 남성을 주요한 대표노동자로 여성을 산업예비군으로 이분화하여 여성을 싼 임금의 원천으로 자리 잡게 하고 기존의 남성적 특권을 강화시킨다.³⁹⁾

36) 전순옥, 『끝나지 않은 시대의 노래』, 한겨레출판사, 2004. 140쪽.

37) 위의 책, 149쪽.

38) 구해근, 『한국노동계급의 형성』, 창작과 비평사, 2002, 108쪽.

39) 김현미, 앞의 책, 129쪽.

남녀 노동자들에게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작용했던 가부장적 질서는 그 안의 여성노동자들에게는 더욱 많은 제약을 가했다. 여성노동자들은 노무관리, 노동배치 등에서 남성들에 비해 예속적 위치에 놓이게 되고 폭행이나 성적굴욕과 수모등 비인간적 학 대의 대상이 되었다.⁴⁰⁾ 면방업등 전형적인 여성 산업의 경우에도 여성의 승진은 조장과 반장으로 한정되며 기술 축적이 별로 없었다. 1970년대 후반 여성노동력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전자부품 생산직의 경우에도 비슷한 한계를 보여준다.⁴¹⁾

여성노동자와 남성노동자의 관행적이었던 임금 차에서 드러난 차별을 살펴보자. 위에서 지적했듯 가부장제 하에서 여성은 남성의 부양을 받도록 가정되기 때문에 저임금을 주어도 당연하다고 생각한다.⁴²⁾ 여성노동자 저임금의 원인을 한국노총의 조사연구보고서에서 인용해보면, 1. 여성노동은 대부분이 가계 보조적인 것으로서 미숙련, 단순작업에 종사하는 관계상 그들의 임금률이 그렇지 않은 남성노동에 비해 낮으며, 2. 여성은 남성보다 이직률이 높아 이것이 여성의 노무비를 상대적으로 높이고, 3. 법이나 노동협약에서 여성보호 규정은 규정을 지키는데 들어가는 비용만큼 여성의 생산성을 감소시키고, 4. 기혼의 경우 남자에 비해 노동시장에 있어서 이동의 자유가 제한되어 유리한 고용기회를 찾아 타 지역으로 옮겨갈 수 없다는 등의 견해를 제시한다.⁴³⁾ 이런 보고서에서 드러난 편견은 여성차별을 심화시키고 저임금을 정당화했다. 한국노총의 1991년도 자료에서도 여전히 여성 노동자의 임금은 남성노동자의 절반 수준이며(52%), 일반 여성노동자의 직업관과 스스로의 성찰이 가장 먼저 촉구되고 있다.⁴⁴⁾

40) 이효재, 앞의 책, 266쪽.

41) 조은, 「가부장제와 경제:가부장제의 자본주의적 변용과 한국의 성노동」, 『한국여성학』 2, 1986. 116쪽.

42) 신인령, 위의 책, 41쪽.

43) 한국노총, 「조직여성의 근로실태에 관한 조사보고연구서」, 99-103쪽. 신인령, 위의 책, 41쪽. 재인용.

44)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여성노동과 평등』, 1991. 22-26쪽.

여성 노동자들의 저임금은 여성노동자들로 하여금 장시간 노동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요인이 된다. 생계비의 확보를 위해서는 기준시간이외의 초과노동을 통해 생계비의 부족 부분을 보충해야 하기 때문이다. 장시간의 노동은 노동자층의 일상생활에도 많은 문제점을 야기 시키게 된다. 그것은 노동자들의 자유로운 활동의 기회를 제한하게 된다. 한편으로는 자신을 교육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없게 만듦으로써 여성노동자들의 의식을 억제하는 요인이 된다.⁴⁵⁾ 1960-70년대의 여성 노동자들은 전술한대로 작업장에서의 차별요인과 구조, 즉 권위적인 체제와 여성 억압적 권력에 묶여 있었던 것이 확실하다.

결국, 이러한 배경들이 맞물리고 중첩되어 1960-70년대 여성노동자들의 노동 상황은 열악하기 짝이 없는 것으로 단단하게 굳어 갔을 것이다. 그러나 여성노동자들은 조합운동과 교육을 통해 차츰 인간다운 삶과 더 나은 조건에의 가능성을 보게 되었다. 이것이 1960년-1970년대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운동과 노동조합운동의 원동력으로 작용한 것이다.

45) 박기남, 「여성노동자들의 의식변화과정에 관한 한 연구」, 연세대석사논문, 1988.

IV. 동일방직 노동조합운동의 전개와 여성노동자 문제

1970년대 동일방직 노동조합운동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는 동일방직 노동조합운동의 전개과정과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여성 노동자들의 문제에 주목, 무엇이 이 운동의 가장 큰 원인이 되었고 주요한 갈등의 지점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1960-1970년대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운동을 다룬 연구 성과들을 살펴봄으로 당시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운동의 성격에 대한 단서를 얻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1970년대 여성노동운동에 대해 연구한 자료들은 당시 현장의 운동가들에 의해 쓰인 연구물부터 시작해 여성노동의 현황과 발전에 대한 기술⁴⁶⁾, 노동운동에서 여성노동자의 투쟁을 과소평가하는 것에 대한 비판과 그 원인에 대한 진단⁴⁷⁾, 여성학적 관점에서 여성노동자와 여성노동자 노조를 연구한 연구⁴⁸⁾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 1970년대 여성노동자에 대한 주요 연구들을 살펴보면 정현백과 박기남, 정미숙은 1970년대 여성노동자의 의식에 대한 연구를, 방혜신은 70년대 여성 특수과제 실현에 대한 연구를, 전순옥은 여성노동자를 둘러싼 사회, 노동자의 의식, 정치등 여러 가지 관점에

46) 한국의 여성운동에 대해 다룬 연구들: 이효재, 『한국의 여성운동-어제와 오늘』, 정우사, 1989. 한국여성연구회, 「생산직 여성노동자운동」, 『여성과 사회』 2, 1991. 장미경, 「시민권의 정치와 여성노동운동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 연세대 대학원박사학위논문, 2001. 김경희, 「한국여성노동조합운동의 출현」, 경제와 사회, 43호, 1999. 강현아, 『여성, 역사노동문화의 주체』, 경인문화사, 2003. 신인령, 『여성, 노동, 법』, 불빛, 1985.등.

47) 80년대의 남성주도 노조운동과의 비교적 연구이다. 전순옥, 『끝나지 않은 시대의 노래』, 한겨레신문사 2004, 79-99쪽. 방혜신, 「70년대 여성노동운동에서 여성특수과제실현조건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사회학과석사논문, 1994, 2-4 쪽, 11-15 쪽. 박기남, 「여성노동자들의 의식변화과정에 관한 한 연구-70년대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연세대학교대학원 사회학과 석사논문, 1988, 37쪽. 참조.

48) 이 글에서는 종전의 연구에 비해 여성노동자, 여성의 입장에서 서술하고 여성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발생하는 의문점, 문제점을 해결하고 규명하는 입장을 취하는 연구 성과를 지칭했다.

서 접근하였다.

정현백⁴⁹⁾은 여성노동자의 수기 분석을 통해 노동자 의식을 체계화해보려는 시도를 하였다. 노동자의 의식 양태들이 이루는 위계구조와 그것들이 정치, 사회, 경제적 이해관계와 어떻게 연루되며 어떤 메커니즘을 형성하는지에 대한 분석이다. 정현백은 여성노동자들 속에 내재하는 전 자본주의적 의식 양태들은 노동자사회에서 온존되어 자본의 이해관계에 복종, 봉사하게 되며, 이는 열악한 노동조건을 감수하고 한국자본주의에 지속적인 노동력공급을 가능하게 한다고 분석했다. 70년대 노동운동은 값진 경험이었지만 그 이상의 목표를 설정하지는 못하고 지위를 향상시키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판하며 진보적인 여성의식을 깨우치는 것이 당면과제라 주장한다. 그러나 70년대 몇몇의 노동조합 운동에서 드러나는 정치적 의식, 수기에서 나타나는 연대의 필요성 인식 등은 여성노동자의 정치의식이 부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교육기회박탈, 생계유지 등으로 정련된 정치의식을 함양할 수 없었던 한계는 있었겠지만 여성 노동자에게 노동조합운동은 노동계급으로의 정치의식, 여성으로의 정치의식을 기르는 장이 되었다. 노동운동을 통해 촉발된 긍정적 요인, 즉 동료 노동자들 간의 연대의식, 여성 노동자로의 자각, 작업장내 여성문제에 대한 개선 노력 등은 여성노동자의 의식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박기남⁵⁰⁾은 수기분석과 사례연구를 통해 여성 노동자의 의식변화를 분석하되, 사회적 경험의 차이에 따라 일반여성노동자, 야학에 참여한 여성노동자, 노동운동을 경험한 여성노동자의 세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70년대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운동은 사회운동의 전반적인 수준과 관련, 자연발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으며, 80년대에는 70년대의 경험에 대한

49) 정현백, 「여성노동자의 의식과 노동세계: 1970년대의 노동자 수기 분석을 중심으로」, 『여성』 1, 창작과 비평사, 1985.

50) 박기남, 앞의 글.

반성을 토대로 목적의식적인 노동운동의 형태로 한 단계 나아가 계급의식을 갖고 계급이익의 실현에의 의지를 보인다고 했다.

정미숙⁵¹⁾은 미혼노동자들의 유순성, 순종성, 임금노동의 일시성 등이 조직화를 방해하고 투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일반적인 경향이 한국에서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70년대 미혼여성노동자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운동에 참가하게 되었는지 그 조건을 밝히려고 하였다. 연구자는 미혼여성노동자들은 공통의 정서와 욕구에 기반한 동질감을 형성하고 노동조합교육, 훈련과정, 기숙사생활을 통해 결속력을 다지고 조직활동을 통해 여성노동자 의식을 증진시켰다고 결론 내렸다. 박기남과 정미숙의 연구들은 여성노동자들을 면접하여 그들의 이야기를 서술하고 연구의 근거로 삼음으로 여성중심의 노동운동사 연구에 좋은 성과를 주었다. 그러나 정부의 통계나 수치로 증명될 수 없는 더 많은 여성의 목소리를 담지 못한 점, ‘여성’으로서의 상황이 계급의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이지 않은 점 등은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방혜신⁵²⁾은 70년대 여성노동운동에 대한 기존의 평가에서 당시 여성노동자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나가고자 노력했던 과정이 충분히 분석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 70년대 여성특수과제가 성공적으로 실현된 두 사업장의 여성노동자들을 심층 면접하여 육아 문제 등의 여성 특수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직적인 투쟁이 존재했었다는 점을 밝히고 투쟁의 성공조건을 알아보았다.

전순옥⁵³⁾은 1960년-70년대의 섬유, 의류부문에 종사한 여성노동자들의 노력 덕택에 민주적인 원칙이 남한 노동운동에 확고히 자리 잡았으며 그들

51) 정미숙, 70년대 여성노동운동의 활성화에 관한 경험 세계적 연구-섬유업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3.

52) 방혜신, 70년대 여성노동운동에서 여성특수과제 실현조건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사회학과석사논문, 1994.

53) 전순옥, 앞의 글.

의 업적을 부인하지 말아야 한다고 한다. 남한의 노동조합을 설명할 때 대부분 여성의 역할과 위치를 무시하고 있는 것을 비판하면서, 남한의 페미니스트의 연구자들이 서구의 전형적이고 부적절한 모델을 빌어 한국 상황을 분석하는 것 역시 비판한다. 또한 여성노동운동지도자들에게 성의식이 부재해 여성관련 문제를 다루거나 사안을 확대하지 못했다는 관점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관점을 취하고 있다. 박정희 정권의 독재와 민주적 노동조합의 탄압하는 상황에서도 청계피복노조, YH무역노조 등의 예를 들어 설명하며 이제까지 알려진 바와는 다르게 여성들은 정치적, 사회적 활동을 활발히 전개해왔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영웅적인 인물의 지나친 부각과 남성중심의 노동운동사와 페미니즘 여성노동사를 모두 비판하며 그 역사인식의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은 아쉽다.

이런 연구 성과들은 1970년대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운동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게 한다. 이번 장에서는 앞선 연구들에서 주목한 것처럼 동일방직 여성노동자들의 사회·정치적 의식 수준이 어떠한가, 동일방직 여성 노동자들의 조건과 의식에 영향을 미친 사회·정치적 상황과 동일방직 여성노동자들이 벌였던 노동운동의 양상을 분석하는 것으로 동일방직 노동조합운동의 의미를 규정하고 여성노동자들에게 작용했던 억압적 힘들을 밝혀 볼 수 있을 것이다.

1. 동일방직 노동조합운동의 전개

동일방직 노동조합운동은 여성 지부장 선출과 회사의 방해공작, 노조원들의 조합사수, 부당 해고와 이후의 복직투쟁으로 나뉜다.

동일방직은 국내의 유수의 면방업체 중의 하나로 노조가 1946년부터 결성되어 노조원들의 뜻을 반영하고, 임금인상과 노동조건 향상 등의 조건을

회사에 요구, 승리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곳이었다. 그러나 1970년대 초반에는 조합원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소수의 기술직 남자조합원들이 노조지부의 간부직을 차지하고 조합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여성조합원들은 조합 활동으로부터 소외되어있는 상황이었다.⁵⁴⁾

1972년 5월, 회사의 지원을 받는 남자후보자를 큰 표차로 물리치고 주길자가 지부장으로 선출되었다.⁵⁵⁾ 주길자 지부장때부터 상임위원 19명이 모두 여성들로 구성되었고, 이것은 이전에는 겨우 부녀부장 자리나 여성에게 할당되던 것과는 달리 조합원의 85%를 차지하는 여성들의 위치를 겨우 반영하게 된 것이다.⁵⁶⁾ 주길자 지부장을 중심으로 한 여성 집행부는 회사측으

54) 동일방직에서 처음 여성지부장이 선출될 당시, 전체 조합원 1,383명중 88%인 1,214명이 여성들이었지만 동일방직은 물론 다른 방직공장에서도 지부장은 남자가 맡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있는 상황이었다. 동일방직복직투쟁위원회, 『동일방직노동조합운동사』, 돌베개, 1985, 33쪽.

55) 동일방직 노조가 여성 조합원들의 민주노조로 전환하고 성장해가는 초기과정에서 인천 도시산업선교회및 JOC(가톨릭노동청년회)등의 지원은 아주 큰 것으로 보인다. 가톨릭 노동청년회(JOC)와 기독교 집단인 도시산업선교회는 1950년대 말에 국제조직의 후원 아래 조직되었고, 1960년대 초에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선교활동을 시작하였다. 제2차세계대전 당시 벨기에와 프랑스 노동사목의 사례에서 영감을 받아, 일단의 가톨릭, 침례교,장로교 성직자들이 공장과 부두에서 일하는 사람들 속에서 목회를 시작했다. 그 가운데 일부는 공장에서 노동자로 일했고 현장경험을 마친 후 ‘공장사목’이 되었다. 도시산업선교회 목사들은 공업단지 부근에 교회를 세우고 그 지역의 노동자와 가난한 주민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했다. 가톨릭노동청년회는 산업도시나 인근지역에서 청년들을 모집하여 임금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돕기 위해 활동하였다. 구해근, 앞의 글, 117-118쪽.

또한 도시산업선교의 조화순 목사 역시 동일방직 노동조합에 큰 영향을 끼쳤다. 조화순 목사는 1966년 10월 인천으로 와서 6개월간 동일방직에서 일하게 되었다. 조화순 목사는 훈련을 마친 후 동일방직에서 선교활동을 시작하고 강연회와 소집단 교육 프로그램을 여는 등의 활동을 벌였다. 여공들이 모여서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생활과 일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고, 대화도중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것이 언급되었으며 자연히 문제점을 자각하게 되었다. 도시산업선교 실무자회의에서는 공장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노동조합이란 무엇인가’에서부터 노동법과 노동조합사에 대한 교육을 시작하였다. 이때 여공들은 동일방직 노조가 노동자들을 대표하지 않고 노조간부들의 이익을 위해 회사와 타협하는 어용노조임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여성노동자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여성들로 이루어진 새로운 노조를 구성해야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들 여성노동자들은 점차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소집단교육에 참여한 여공들은 대의원 선거를 통해 새로운 노조를 구성하려는 전략을 세웠다. 대의원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회사는 이제까지 했던 대로 특정인을 내세워 여공들에게 그 사람을 뽑을 것을 강요하였다. 그러나 여공들은 소집단모임에서 연습했던 대로 대의원을 뽑았고 그 결과는 41명의 대의원들 중 29명이 여성이었고 그 중 24명은 소집단 모임에서 뽑았던 후보자들이었다. 조화순, 「민중의 딸들과 함께」, 『최근노동운동기록』, 청사, 1986, 63-64쪽. 이옥지, 앞의 글, 160쪽, 재인용.

로부터 욕설, 헐박, 부당 해고, 사표강요, 부서 이동들의 탄압을 받으면서도 조합원의 권익옹호, 임금인상, 복지후생 확대등을 위해 노력하였고, 조합원들은 이를 지지하였다.⁵⁶⁾ 주길자 지부장의 당선과 여성집행부의 구성은 여성노동자들에게 남성위주의 집행부에서 탈피, 여성노동자들의 요구와 개선요청을 실제적으로 이루어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었으며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의 집단적, 정치적 의식을 발생시켰다.

1975년 주길자 지부장의 임기가 끝나고 23대 지부장으로 이영숙이 절대다수의 지지로 선출, 여성 집행부로 이어지자 회사뿐 아니라 정부의 눈에도 위협적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1976년 2월 대의원 선거전에는 정부와 중앙정보부, 회사가 함께 이영숙 지부장을 제거하고 노조를 파괴하려 한다는 소문이 돌았다.⁵⁸⁾

회사측은 대의원 선거 분위기를 위협적으로 만들어 대의원 입후보를 어렵게 만든다음 회사측 사람들을 입후보하게 만들었다. 또한 이 위협을 극복하고 대의원에 당선된 집행부 지지 조합원들을 부서 이동을 시키거나 사소한 이유로 시말서나 경위서를 쓰게 하는 동시에, 여성 대의원 집을 찾아다니며 돈으로 회유, 매수하였다. 이렇게 회사측은 대의원 47명중 24명을 자기편으로 만드는데 성공하였고 (24명중 21명은 남자), 노조지부가 대의원 대회를 열기로 한 4월 3일에는 회사측 인사인 고두영측 사원들이 대의원 24명을 데리고 유원지로 놀러가 대회는 성원 미달로 휴회되었다. 4월 23일 재개된 대의원 대회에서는 고두영은 지부장 불신임안을 제기, 이영숙 집행부의 붕괴를 기도했다. 그러나 대의원들의 강력한 반대로 벽에 부딪히자 고두영과 회사측 사원들은 퇴장했고 대회는 또 성원미달로 휴회되고 말았다. 이후 회사측은 노조집행부를 지지하는 노조원들이나 대의원들을 부서이동

56) 이옥지, 앞의 글. 161-162쪽.

57) 통일방직복지투쟁위원회, 『동일방직노동조합운동사』, 돌베개, 1985, 33쪽.

58) 석정남, 『공장의 불빛』, 일월서각, 1984.

시키고 기능공에게 양성공의 일을 시키고 사소한 일로 시말서와 경위서를 쓰게 하였다.

1976년 7월 23일 아침, 고두영과 회사측의 대의원들은 기숙사 강당문을 걸어 잠그고 자과 대의원 24명으로 대의원 대회를 시작하였다. 현 집행부가 불신임되었고 고두영이 지부장으로 선출되었다. 회사측은 조합원들의 저항을 막기 위해 기숙사 문을 못질해버렸으나 200명의 조합원들이 창문에서 뛰어내리는 등 회사의 제지를 뚫고 노조 사무실로 몰려들었고 지부장 석방, 고두영측이 개최한 대회 무효, 회사의 노조탄압 규탄 등의 구호를 외치며 농성에 들어갔다.⁵⁹⁾ 이에 노조가 2시 퇴근자들을 귀가시키고 출근자들에게 작업에 참가할 것을 종용하여 농성이 진정될 기운을 보이자 이영숙 지부장과 총무부장 이충각을 연행해갔다. 400여명의 조합원들은 간부석방을 요구하며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다음날인 7월 24일 아침에는 농성자들이 800명으로 불어났고 농성장으로 들어오지 못한 300여명도 밖에서 호응해 농성에 참여했다. 이날 밤 10시부터 동일방직 노조는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회사측은 물과 전기를 끊고 화장실 문까지 잠가버렸다. 농성소식을 듣고 달려온 가족들이 음료수를 들여보내자 경비원들이 병째로 깨뜨려버렸다.⁶⁰⁾ 7월 25일에도 농성은 계속되었고 더위 속에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오후 5시경 50명의 완전 무장한 경찰이 연행버스를 대기시켜놓고 농성여성노동자들을 포위하였다. 여성노동자들은 강제해산을 거부하기 위해 작업복을 벗어 던지고 저항했다. 그러나 경찰은 여성노동자들을 구타하며 회사측 사람들이 지적해주는 대로 농성주동자들을 끌어내어 연행하였다. 이 사건으로 72명이 연행되었고 50명이 쇼크를 받아 정신을 잃었으며, 70명 이상이 부상을 입고 14명이 병원에 입원하였다. 그 중 2명은 정신분열증세

59) 동일방직복직투쟁위원회, 앞의 글, 54쪽.

60) 석정남, 앞의 글, 48-50쪽.

동일방직복직투쟁위원회, 앞의 글, 54-61쪽.

로 병원에 입원하여 각각 6개월과 1년간 치료를 받아야 했다. 이 농성은 회사측에 대항하여 동일방직 여성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노조를 지키려 행동했던 대규모의 첫 농성사건으로 경찰과 회사가 연합해 여성노동자들의 노조운동을 파괴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1976년 7월 29일 전국섬유노동조합 대의원대회에서는 김영태가 당시 위원장 방순조를 동일방직사태를 잘 수습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몰아내고 자신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그러나 김영태는 위원장에 선출된 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수습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전국섬유노동조합이 동일방직사태 수습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고두영은 현 집행부를 몰아내려고 하였고 회사는 공개적으로 고두영을 지지하였다.

회사의 탄압에 못 견디는 조합원들이 전국섬유노동조합으로 몰려가 호소하자 전국섬유노동조합은 11월 3일 수습대책위원장에 이풍우를 임명하고 모든 권한을 위임하여 동일방직으로 내려 보냈다. 그러나 수습대책위원장 이풍우는 2월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선출된 대의원들을 그냥 두자고 주장하고 회사측과 내통하여 노조탄압에 앞장섰던 담임급의 관리직 남자사원들을 노조원으로 가입시키도록 단체협약을 갱신해버렸다. 전국섬유노동조합과 수습위원장에게 기만당한 노조원들은 1977년 1월부터 불법 체결한 단체협약 취소를 요구하고 거부할 시 전국섬유노동조합과 수습위원장의 비리를 사회여론화 시키겠다고 위협하였다. 또한 노조지부는 스스로 '동일방직사건수습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노조를 지켜나가기로 결의했다. 1977년 2월 1일 동일방직 노동자들은 2월 6일 '사건 해부식'을 명동 카톨릭 문화회관에서 거행하기로 하고 사회에 알리기로 했다. 결국 2월 4일 며칠 전 구속되었던 투쟁위원 4명이 풀려나고 노동청에서 합의를 주선한다는 말과 모든 요구조건을 다 들어주겠다는 전갈이 왔다. 그리하여 사원의 노조가입배제, 자율적인 대의원 선출과 조속한 대의원 대회 개최 등 6개항의 합의서에 서명하게 되

었다.⁶¹⁾ 노동조합의 권리를 지키는 데 힘써야 할 전국섬유노조가 오히려 회사 측과 타협적인 태도를 보인 사건은 동일방직 노동조합의 노동자들에게 스스로 문제를 사회에 알리겠다는 의지를 발생시켰다. 또한 전국섬유노조의 태도에 분노한 동일방직 노동조합이 기업별 노동조합의 문제를 여론화시키겠다는 결심을 하고, 스스로 동일방직사건수습투쟁위원회를 결성하게 되는 과정에서는 노동자들 사이에서 자율적으로 발생한 사회의식을 엿볼 수 있다.

지부장을 선출하는 1977년 4월 4일 대의원대회에서도 남자들이 고춧가루와 인분을 들고 대회장에 참석하자 작업 중이던 여성조합원들이 작업을 중단하고 뛰어와 대회장을 둘러쌌다. 수많은 여성노동자들이 몰려들자 회사 측은 당황하여 남자조합원들을 만류하였고 결국 이 대회에서 이총각이 지부장으로 선출되었다. 지부장 선출이 끝난 후부터 직책상 상급자인 남자직원들이 작업시간 중에 공장 내를 돌아다니며 조합원들에게 조합 탈퇴서를 강요하였다. 여성조합원들은 남자직원, 반장, 조장, 담임 등의 압력에 견디지 못하고 조합 탈퇴서에 서명하였다. 지부 간부들은 노동청과 전국섬유노동조합을 방문하여 항의하고, 조합원들이 자의에 의해 탈퇴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탈퇴확인작업을 벌였다. 그리하여 지부 사무실에 와서 소정의 절차를 밟아 자신의 조합탈퇴를 확인할 것을 공고하였고 노동청과 전국섬유노동조합도 이 요구를 무시할 수 없어 결국 조합탈퇴 확인작업에 동의하였다. 지부사무실에서 행해진 조합 탈퇴 확인작업에 응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며 지부는 6월 6일자로 675명의 재 가입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이 분류는 노조의 승리로 끝이 났다.

1978년 2월 11일 상임집행부 회의는 2월중에 대의원대회를 개최하기로 하였고 전국섬유노동조합에 개최승인을 요청하였다. 대의원 대회는 2월 21

61) 동일방직 복지투쟁위원회, 앞의 글, 76쪽.
석정남, 앞의 글, 62쪽.

일로 확정되었고 지부장 후보등록도 실시되었다. 이에 앞서 전국섬유노동조합은 1월 23일 임시대의원 대회를 열어 지부와 분회의 자율권을 제한하고 전국섬유노동조합 본조 및 본조 위원장의 권한을 크게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규약을 개정하였다.⁶²⁾

대의원선거일이 공고되자 회사측의 남자조합원들과 문명순, 박복례 등은 현 노조집행부 전원이 산업선교와 가톨릭 노동청년회라는 용공단체에 의해 조종되기 때문에 하루속히 타도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작업시간에 조장들을 통해 배포하였다. 또 동인천 문화여관 105호실을 전세내어 강사를 상주시키면서 조합원들에게 산업선교와 가톨릭 노동청년회에 대한 비방과 노조집행부에 대한 비난을 골자로 한 내용을 주입시켰다.

1978년 2월 21일 노조대의원 선거일, 회사측의 사원인 여자 2명과 남자 5-6명이 방화수통에 분노를 담아와 노조사무실로 달려 들어왔다. 이들은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투표하러 오는 여성조합원들의 얼굴과 옷 등에 닥치는 대로 분노를 바르고 도망가는 여공을 쫓아가 분노를 머리부터 뒤집어씌우기도 했다. 노조에서 요청한 정사복 경찰들과 파견된 섬유 노조 간부들은 이를 지켜보고만 있었으며 말리지 않았다.⁶³⁾

집행부는 오후 2시에 다시 투표실시를 알리고 새 투표함을 만들어 준비를 끝냈는데 12시경 남자 조합원들이 노조간부들을 폭력적으로 끌어내고 노조 사무실을 점거했다. 이 과정에서 5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때부터 집행부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와서 일을 방관하던 전국섬유노동조합의 조직행동대원들도 노골적으로 남자조합원들과 합세하여 집행부 간부들을 밀어

62) 개정 규약의 골자는 섬유 본조가 지부나 분회의 인준 없이 지부나 분회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본조의 집행위원회가 본조 중앙위원회에서 사고지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선출기관의 동의 없이 지부 임원을 본조 중앙위원회에서 징계처분할 수 있게 한 것등 어용상급노조가 눈에 거슬리는 지부를 사고지부로 규정, 정리해버릴 수 있는 방법을 제도화 한 것이었다. 동일방직 복직투쟁위원회, 앞의 글, 93-94쪽.

63) 석정남, 앞의 글, 92-97쪽.

냈다. 대의원 선거는 수포로 돌아가고 노동자들은 500명이 모여 농성하다 오후 6시경 자진 해산하였다.⁶⁴⁾ 이 사건은 동일방직 노동조합을 기업과 전국섬유노동조합, 경찰의 국가권력이 개입, 탄압한 대표적인 사건이다.

전국섬유노동조합은 2월 23일자로 동일방직노조를 사고지부로 결정하고 노조의 업무 일체를 조직수습위원회에 인계하라고 명령했다.⁶⁵⁾ 노조는 지금의 상황이 단순히 한 기업 내 노조활동 유지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고 자율적인 노조를 되찾기 위해 회사와 관계당국, 섬유 노조와 한국노총을 상대로 어떤 희생을 각오해서라도 싸울 수밖에 없다고 결의하였다. 이총각 집행부는 사고지부 결정을 거부하는 한편, 민주노조 수호 결의를 밝히는 유인물을 제작, 배포하였다. 전국섬유노동조합은 조직행동대를 동원, 노조사무실을 점거하고 조합간부들의 출입을 막았으며 3월6일 본조 중앙위원회에서는 이총각, 정의숙, 이병국, 김인숙등 4명의 간부들을 '반 노동조합적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제명하였다.

주요 간부들이 제명되고 회사 내에서 조합활동이 불가능해지자 조합원들은 투쟁장소를 회사 밖으로 옮겨 투쟁을 계속해나갔다. 이는 3월 10일 노동절 행사 시위, 답동 천주교회에서의 50여명 단식농성, 3월 26일 부활절 예배사건으로 이어졌다. 1978년 3월 10일 동일방직 노동자들은 노동절 행사가 열리고 있는 장충체육관 안으로 들어가서 구호를 외치고 유인물을 뿌렸다. 이들은 곧 경찰과 조직행동대에 의해 구타당하고 31명의 조합원들이 경찰에 연행되었다. 연행되지 않은 노동자들은 명동성당으로 가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이에 호응하여 3월 12일 인천 답동 천주교회에서 50여명의 동일방직노동자들이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그동안 신문, 방송등 언론기관은 침묵을 지키고 있었으며 3월 20일 기독교회관 2층에서 열린 강좌에 참석한 여성노동자 30명이 동일방직 사건에 대한 언론의 침묵에 항의,

64) 이옥지, 앞의 글, 341쪽.

65) 한국기독교사회문제 연구원, 앞의 글, 496쪽.

9층의 기독교 방송국으로 몰려가 생방송을 일시 중단시키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들은 기동경찰에 의해 폭행을 당했다. 장기단식으로 사태가 심각해지자 한국노총위원장과 동일방직 사장이 단식장소로 와서 단식을 풀 것을 종용했고 종교계지도자들이 정부당국과 협상을 벌여 사건을 2월 21일 이전으로 환원하고 노조를 정상화시킬 것을 합의하였다. 그리하여 3월 23일 명동성당과 인천에서 동시에 단식을 풀었다. 그러나 이 합의는 지켜지지 않았고 회사측은 먼저 돌아간 몇몇의 조합원들에게 회사명령에 복종하고 어떤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각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다.⁶⁶⁾

회사는 3월 24일 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예고인정신청을 하였고, 경기도 지방노동위원회는 3월 29일 해고예외인정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동일방직주식회사는 1978년 4월 1일자로 124명의 노동자들을 해고하였다. 전국섬유노동조합의 김영태는 해고노동자들의 명단에 부서, 주민등록번호, 본적까지 기재한 후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전국 사업장과 노조에 배포하였다. 해고 후 다른 곳에 취직하려던 노동자들은 이 블랙리스트로 가는 곳마다 거부당했고 취직을 한 경우에도 발각되는 즉시 해고당했다. 동일방직 해고노동자들의 복직투쟁은 1984년의 블랙리스트 철폐투쟁 시까지 이어졌다.

동일방직 노동조합운동은 여성노동자들의 조합운동으로 시작해 복직투쟁으로 이어졌다. 이 10여년간의 역사는 동일방직 노동조합운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요인에서 촉발되었다거나 분절적인 운동이었다는 편견을 불식시킨다. 동일방직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운동은 또한 1978년 회사 안에서의 투쟁이 불가능해지자 회사 밖으로 장소를 옮겨 계속해나갔던 점, 동일방직 노동자들과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다른 조합의 노동자들과 연대하거나 교회나 지식인들과 연대하여 투쟁을 지속했던 점, 자신들의 노동운동을 사회적 차

66) 동일방직 복직투쟁위원회, 앞의 글, 119쪽.

원으로 확대시킨 점등은 중요한 의미를 제시한다. 이는 노동자 운동이 이후 사회적 차원의 운동으로 나아가는 데 초석이 되었으며 주체인 여성노동자들의 연대의식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을 보여준다. 또한 이 사건은 1970년대 여성노동운동이 경제적인 문제에만 천착했다는 기존의 비판과는 달리 산별 노조, 국가권력 등의 문제를 미미한 차원이지만 여성노동자들이 스스로 인식했다는 데에서 의미를 지닌다.

2. 노조 탄압과 여성문제

1970년대 여성노동자운동에 대해 일괄적으로 그 성격을 규명하기란 쉽지 않다. 70년대 여성노동자들의 운동은 폭압적 국가와 어용노조에 대항하여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노조를 결성하려는 성격, 노동조건과 임금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성격, 70년대 말에 와서는 작업장의 여성과제를 개선하려는 성격 등 다양한 성격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 여성노동운동의 사례를 살펴보면 노조결성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분규, 기존 노조 파괴기도 및 조직분규, 임금인상과 근로조건 개선 요구로 인한 쟁의, 법정수단 및 퇴직금 요구투쟁, 도산 및 폐업으로 인한 투쟁, 연대투쟁 및 정권의 탄압으로 인한 투쟁 등⁶⁷⁾으로 나누거나 노조민주화/민주노조 사수투쟁, 임금인상, 노동조건 개선, 권리신장, 체불임금, 휴폐업 등으로 인한 투쟁, 미조직 사업장 투쟁 등⁶⁸⁾으로 임의 분류를 해 볼 수는 있다. 그러나 한 가지 사건이 여러 성격을 한번에 담고 있는 사례, 노동운동의 발전과정에 따라 다른 성격의 운동을 촉발시키거나 변해간 사례 역시 다양하다.

분명한 것은 여성노동자들이 그토록 단결되고 투쟁적인 활동을 보였던 그 현상의 이면에는 '여성 노동자'로서 겪은 특수한 경험들이 존재한다는 것이

67) 한국기독교사회문제 연구원, 『노동현장과 증언』, 풀빛, 1986, 목차참조.

68) 이옥지·강인순, 『한국여성노동자운동사』 1,2, 한울, 2001, 목차참조.

다. 특히 전술한 것처럼 박정희 정권 하 국가차원의 가부장적 통제 이데올로기와 한국의 여성에게 작용하는 남성 종속적 질서와 교육, 성을 매개로 한 여성 통제 등은 여성노동자 개개인에게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었을 것이다. 동일방직의 경우, 여성노동자가 노동현장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조건과 한국 최초로 여성지부장과 여성중심의 집행부, 이후 남성 관리직 노동자를 이용한 노조탄압, 남녀대결구조를 조장한 회사, 노조 탄압 중 저질러진 성폭력과 폭력, 여성 노동자 의식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자료 등으로 여성노동자 특유에게 가해진 억압을 더욱 극명하게 드러내 보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동일방직노동조합운동을 통해 여성노동자에게 가해진 여러 측면에서의 억압적인 상황, 또한 여성노동자로서의 특수한 상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한다.

1) 여성 집행부선출과 남녀 대립을 이용한 회사의 노조파괴

동일방직노동조합이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1972년 당시 부녀부장 주길자가 한국최초의 여성지부장으로 선출되면서부터이다. 동일방직은 1,383명의 조합원 중 1,214명이 여성이었다. 동일방직 노조를 효시로 1974년에는 반도상사 부평공장지부에서, 같은 해 YK무역지부에서 여성 지부장이 배출되었으며, 지역지부 분회에서도 여성분회장이 속속 선출되었다. 여성노동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 조합원들은 조합활동 으로부터 소외되고, 소수의 기술직 남자직원들은 주요 간부직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다.⁶⁹⁾ 당시 동일방직의 남자 노동자들은 대부분 웬만큼 기술을 갖춘 기능공으로서 여자노동자들보다 보수도 배 이상을 받았고 작업시간도 아침 출근, 저녁퇴근으로 3교대인 여자공원에 비해 월등한 대우를 받고 있었다. 그리고 연

69) 동일방직복직투쟁위원회, 앞의 글, 32쪽.

수가 차고 회사의 인정을 받으면 관리사원인 담임으로 승진할 기회도 주어졌다. 이로 인해 남자 조합원들은 서로 간에 치열한 진급경쟁을 벌였다.⁷⁰⁾

이전의 노조는 조합원들의 의사는 반영하지 못하고 전국 섬유노동조합의 지시에 따라 결정된 협약을 승인 요청하는 정도의 기능밖에는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 또한 주길자 지부장이 선출된 것은 민주적인 절차를 따라 조합원의 지지를 받는 지부장이 선출되었다는 의미를 갖는다. 지부장 주길자를 중심으로 한 여성 집행부는 회사 측으로부터 사표강요와 욕설, 협박 등의 탄압을 받으면서도 '조합원 권익옹호', '임금인상', '복지후생의 확대'등을 위해 노력했다.

그동안 남자 지부장들은 회사와 친했고 조합원들이 내는 조합비와 봉급을 타며 기밀비라는 명목으로 돈을 물 쓰듯 했다고 한다 (중략) 술도 모르고 여행과 돈에도 관심이 없는 그들의 관심사는 오로지 '조합원 권익옹호' '임금 인상', '후생복지시설'에 있었다.⁷¹⁾ 72년도까지 노조를 주도하면서 조합비를 마음대로 쓰던 시절을 잇을 수 없었고 남자로서 여자에게 속이고 들어갈 수 없다는 봉건적 심리도 적지 않게 작용하였다.⁷²⁾

첫 여성 집행부에서 쟁의부장을 맡았던 이충각은 여성으로 이루어진 집행부의 여러 활동에 대해 말한다.

일년이면 손들고 나올 거라 했는데 우리가 잘 했죠. 현장에서 여성들이 제대로 할까 했는데 3년을 지켜보면서 놀랐죠. 임금이 많이 올랐지, 남자들하고 격차가 많이 졌던 임금도 많이 좁혀졌지, 식단도 바뀌었지,

70) 동일방직복지투쟁위원회, 앞의 글, 45쪽.

71) 석정남, 앞의 글.

72) 동일방직복지투쟁위원회, 앞의 글, 46쪽.

식사시간도 제대로 찾았지, 월차도 돈으로 주던 것을 자기 필요하면 쓰게 했지, 하여튼 많이 찾았어요. '아 여성들이 하니까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남자들이 26년동안 제대로 못하던걸 여자들이 3년 하니 많이 바뀌는구나' 사람들이 달라진걸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꼈던 거죠. 그러니 두 번째 하는 건 문제가 없었어요.⁷³⁾

1975년 차기 지부장으로 이영숙이 선출되었다. 노조는 임금, 상여금, 퇴직금, 특근 수당 등의 문제와 해고조합원 복직, 몸수색폐지, 기숙사생 식대보조, 운전반 휴게시간보장 등을 요구하는 등 조합원들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였다.⁷⁴⁾ 그러나 여성들의 조합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총무일때 노조사무실에서 상근을 하면 그 사람들(회사에서 사주받은 남자들)이 아침 10시반, 흡연시간이나 점심시간, 오후 쉬는 시간에 일부터 와서...자기들 체면을 유지한다고 여자들을 무시하며 쌍욕을 해대요.⁷⁵⁾

회사의 책동을 받은 남자사원들이 노조사무실로 찾아와서 행패를 부렸고, 회사측은 회유와 협박을 자행했다. 회사 측은 이때부터 남자 사원을 책동하는 방식으로 남자사원들의 봉건적, 가부장적 태도를 자극했고, 남자사원들은 승진의 압력과 여자에게 숙이고 들어갈 수 없다는 심리로 집행부 파괴에 앞장서거나 방관했다.

노동조합이 결성되었을 당시 대부분의 간부직은 남성들에 의해 독차지되기 일쑤이고, 따라서 노동조합을 깨뜨리려고 하는 기업주들은 노동조합의 힘의 원천이 남자 노동자라는 판단아래 남자 분회간부를 매수하는데,

73) 박수정, 『숨겨진 한국여성의 역사』, 아름다운 사람들, 2004. 26쪽.

74) 동일방직복직투쟁위원회, 『동일방직노동조합운동사』, 들메개, 1985, 33쪽.

75) 박수정, 『숨겨진 한국여성의 역사』, 아름다운 사람들, 2004. 28쪽.

이는 상당한 정도로 성공하여 그들은 주로 노동조합의 파괴에 앞장서게 된다.⁷⁶⁾

남자조합원으로 드물게 민주노조 집행부에 참여하여 지내다 끝내는 해고를 당한 이병국의 회고를 들어보면, 그는 조합 활동에 대해 남자동료와 이야기하다 동료가 여자들이 주축이 된 집행부가 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남자들이 집행부를 해야 하는 것은 체면문제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한다.⁷⁷⁾ 몇몇 대목들을 더 들어보면, 여자 일색인 집행부는 자존심이 있으니 절대 지원할 수 없고 누구든 남자라야 한다는 묘한 고집이 머릿속에 박혀 있음을 확인하는 도리밖에 없었으며 그들은 오히려 같은 남자로서 여성 집행부를 지지하고 있던 그를 은근히 비웃는 눈치였다고 말하고 있다.⁷⁸⁾

동일방직 조합원의 다수를 차지하고 민주노조를 지켜가려 했던 여성들은 회사의 사주를 받은 남성 사원, 남성조합원들에 의해 방해로 당해야만 했다. 그러나 위 사례들을 종합해 살펴보면, 회사의 사주를 받지 않은 남자 사원들 역시 ‘남자로서’의 자존심과 체면 때문에, 혹은 회사의 눈치가 보여서 여성 집행부를 반대하거나 파괴되는 상황을 방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위에서 지적했듯 남자직원들에게 주어진 승진기회와 좋은 임금과 근로 조건, 남자직원들의 가부장적 사고가 만들어낸 합작이었다. 여성들이 만들고 유지했다는 이유만으로 노조와 집행부가 깨끗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나 적어도 동일방직에서는 일반 조합원의 권익에는 아무 관심이 없던 관리직 남성위주의 노조를 여성들이 그들만의 힘으로 조합원들의 권익 향상에 노력하는 민주적인 노조로 바꾸어 놓았고 조합원들의 뜻을 모아 수평적으로 운영해 나갔다.

76) 정현백, 『노동운동과 노동자문화』, 한길사, 1991, 432쪽.

77) 동일방직복직투쟁위원회, 앞의 글, 102쪽.

78) 동일방직복직투쟁위원회, 앞의 글, 103쪽.

2) 성폭력과 폭력을 이용한 노조파괴공작

여성노동운동을 진압할 때 사용자는 거의 언제나 남자들을 매수하여 폭행, 성적모욕 등으로 운동을 진압시켰던 것으로 보인다.⁷⁹⁾

조순경 외 2인은⁸⁰⁾ 1984-1989년도까지 전자, 봉제, 섬유, 신발등 여러 여성 산업부문의 성적 폭행 사례를 들어 보았다. 그 결과, 거의 모든 여성 산업에서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성적 통제⁸¹⁾는 나타나며, 성적통제는 어느 특정 부문에서만 발생하는 예외적인 노동 통제방식이 아니라 가부장적 한국사회 구조 하에서 자본에 의한 보편적인 노동 통제방식중의 하나라는 점을 보여준다. 성적 통제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있는데 하나는 여성노동력을 확보하려는 수단으로 여성 노동자에게 개별적 폭행을 가하는 경우이며, 다른 하나는 노사 갈등 시 여성 노동자들의 조직화를 방해하거나 조직 역량을 약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성폭행을 가하는 경우이다. 성적 통제는 성폭행의 위협만으로 강간 공포를 유발, 노동자들로 하여금 사직서를 쓰도록 만들 수도 있고, 남성 관리자가 자신의 성적 부위를 노출시키는 간단한 행위 하나로 파업 농성에 참가한 근로자들을 해산시키기도 하며, 여성 노동자와 남성노동자간의 분열을 조장하기도 하고, 여성노동자와 자본의 관계를 희석시키기도 한다.⁸²⁾ 동일방직의 경우, 노조 파괴 공작에 성적 통제가 등장하여 여성노동자들의 조직적 저항을 분쇄하는데 사용되었고, 그 횡수와 성폭행을 시도한 가해자는 남성직원, 전국섬

79) 박현채 외, 『한국의 자본주의와 노동문제』, 돌베개, 1985, 371쪽.

80) 조순경외, 「여성노동과 성적통제」, 『한국여성학』 5, 1989.

81) 위의 글, 166쪽 참조.

성통제(control of sexuality)는 사회전반에 걸쳐 여성에게 억압적이고 불리한 성관계와 거기서 파생되는 사회적 관계가 남성적 혹은 가부장적 이해 관계에 종속되어, 남성우월, 여성종속의 구조를 유지 강화시키는 기제라면 이 논문에서는 성적통제라는 개념을 새로 만들어 가부장적 사회구조하에서 자본이 성을 매개로 하여 여성노동자들의 자본에 대한 교섭력 및 조직 역량을 약화시키는 노동통제양식을 부르기로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82) 조순경 외, 위의 글, 179-180쪽.

유노동조합의 조직행동대, 경찰 등으로 다양했다. 여기에서는 자료에 드러난 일부의 사례들을 정리해 보겠다.

1978년 2월 21일의 노조 대의원 선거를 앞두고 전국섬유노동조합과 회사는 민주노조운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동일방직 노동조합정상화투쟁위원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조합원들을 교육시키기 시작했다. 그들은 퇴근하는 조합원들을 안전교육, 송별회, 새마을 운동을 빙자하여 관광버스에 태우고 동인천에 있는 문화여관에 방을 빌려놓고 산업선교와 가톨릭노동청년회 비방 및 현 집행부 비난을 골자로 한 내용을 주입시켰다.⁸³⁾ 같은 시기, 회사측에 매수된 박복례와 남자조합원들은 현 집행부가 공산주의자의 지시로 움직이는 도시산업선교회의 조종을 받고 있다고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유인물을 돌렸다. 이 중 주목할 만한 대목을 옮겨보았다.

우리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기에 남들처럼 배우지도 못했으며 공부할 시기에 돈을 벌기 위해 공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 못지 않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졌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도시산업선교회의 설교를 받으면 굶주린 이리와 같은 마음씨로 변할까요? 이것을 저 사람들은 똑똑하게 만들어주었다고 합니다만 우리 다함께 여자의 입장에서 냉정하게 생각을 합시다. 그것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름다운 마음씨를 빼앗기고 표독스러운 인간으로 되어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 부터 소외당하고 있는 것입니다.⁸⁴⁾

위에서 인용한 감정적인 선도의 글 안에는 도시산업선교를 비방하는 내용과 순종적이고 아는 것은 없어도 순종하는 착한 '여성'으로 자리 매김하는 것이 좋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조합원 교육 자리에서는 산업선교는

83) 석정남, 앞의 글, 87쪽.

84) 동일방직복직투쟁위원회, 앞의 글, 97쪽.

용공단체이고 현 노조 간부들은 순수한 조합원 권익옹호보다 다른데 목적이 있다는 내용으로 교육이 진행되었다. 조합원들이 질문공세를 퍼붓고 항의하자 드문드문 섞여 앉아 있던 남자들이 갑자기 일어나 욕설과 함께 조합원들을 끌어내었고 폭행을 하기 시작했다.

그 중 한사람이 "어머, 세상에 이런 사람이 다 있어."하고 외치자 그 중 한 남자가 "그래 이년들아, 우린 이런 사람이다."하면서 아랫도리를 훌쩍 벗어 보이면서 드세게 설쳐대었다. (중략) 그때 방안에서 끌려 나오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던 순이 언니가 외마디 소리를 질러 뛰어가 보니 입술을 물어뜯겨 피가 흐르고 있었다.⁸⁵⁾

1978년 2월 21일, 투표를 하기 위해 조합간부들은 투표준비를 마치고 지부사무실에서 퇴근하는 조합원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박복레, 문명순과 남자조합원 5-6명이 방화수통에 분노를 담아서 투표에 참석하러 오는 조합원들의 온몸에 바르고 뿌리고 먹였다. 달아나는 여자조합원들을 쫓아가 욕설을 하며 셔츠 안의 가슴에 분노를 집어넣고 통째로 뒤집어 씌우기조차 하였다.⁸⁶⁾ 같은 날 12시경, 남자조합원들은 지부장과 총무 등 노조간부들을 폭력으로 끌어내고 사무실을 점거해 버렸다. 오후2시, 여자조합원들이 빼앗긴 사무실을 찾으려 하자 사무실을 점거한 남자들은 깨진 유리조각을 던지고 거칠게 주먹과 발길질을 하며 여자 조합원들을 막았다. 밀고 밀리는 과정에서 여자조합원 배옥진이 유리조각에 손등이 찔려 일곱 바늘을 꿰매는 부상을 입었고 50여명이 부상당했다.

회사 측의 일방적인 대량해고가 있는 이후, 해고 노동자들은 임시전국

85) 석정남, 앞의 글, 90-91쪽.

86) 동일방직복직투쟁위원회, 앞의 글, 99-100쪽.

석정남, 앞의 글, 94쪽.

박수정, 『숨겨진 한국여성의 역사』, 아름다운 사람들, 2004. 34쪽.

섬유노동조합 동일방직 지부를 만들어 활동을 시작하였다. 임시 지부는 섬유노조 김영태의 비리를 폭로하고 노동청과 정당, 신문사 등을 방문해 방문투쟁을 시작했다. 78년 7월 18일, 폭행죄로 연행되어 이총각과 김인숙의 재판이 열렸다. 증언이 끝나고 회사측 증인과 전국섬유노동조합측 증인이 차를 타고 떠나려고 하자, 분노한 여성 노동자들은 차를 못 가게 막고 실랑이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14명이 연행되었다. 이 연행과정을 담은 안순애의 이야기 속에서도 경찰의 폭력은 발견된다.

박복례와 우중환에게 침을 뱉고 욕을 하다보니 어느새 기동경찰들에게 사지가 들려 경찰차에 내팽개쳐졌다.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있는대로 소리를 지르다 차가 흔들려 눈을 떠보니 기동경찰대들이 애들을 방망이로 누르고 예금이를 발로 짓밟고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야! 이새끼들아!” 반사적으로 소리를 질렀다. (중략) 보호실에 옮겨지고 보니 분홍 스커트와 하얀 블라우스를 입었던 용자는 온통 피투성이라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다. 아직도 손에서는 피가 그치지 않고 있었다. “야 새끼들아, 잡아오면 곱게 잡아오지 왜 가슴속에 손을 집어넣고 지랄이야. 이 죽일 놈들아!” 우리의 무기라고는 입밖에 없었다.⁸⁷⁾

동일방직 노조의 운동사를 살펴보면 성폭력과 폭력이 자행된 예를 다량으로 발견할 수 있다. 회사, 경찰, 섬유노동조합의 행동대 등은 집단적이고 조직적으로 여성노동자들의 활동을 해산시키기 위해 성폭력을 이용한 통제방식을 사용했다. 한국의 남성위주의 성문화와 여성에게만 작용하는 이중적 성윤리 등은 이런 폭력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행동 이상의 효과를 거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87) 동일방직복직투쟁위원회, 앞의 글, 183쪽.

V. 결론

박정희 정권의 정치·경제적인 정책과 당시의 여성 억압적인 사회배경은 동일방직 노동조합 탄압의 기저에 있었다. 이는 단순한 노사분규나 노조 안의 조직문제의 성격을 벗어난다. 수차례에 걸친 경찰의 개입과 당시 중앙정보부 개입의 증언, 이후의 '블랙리스트 사건'이 말해주듯 정부의 입김이 깊숙이 작용한 것이었다. 결국 이는 정부와 노총, 회사가 결탁하여 민주노조 운동을 파괴하려고 시도했던 것이다. 여성 노동자들은 이 모두와 맞서 싸워야 했고 이 투쟁 과정은 민주노조로서의 역량을 충분히 보여주었다. 당시의 정치·경제적 상황과 여성 억압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여성노동자들의 투쟁력은 대단한 것이었다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 현 교과서의 1960-1970년대 노동운동에 대한 서술은 이 시대의 노동운동을 주도했던 여성 노동자들을 재평가해 반영해야 할 것이다.

여성 노동자로서의 특수한 억압조건들은 여성노동자들의 조직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여성으로서 받아야 하는 편견, 무시, 성을 매개로 한 통제, 가부장적 사회제도로 인한 차별과 피해 등은 개개인으로서 감당하기는 어려운 것이었다. 때문에 조합 활동과 그룹 활동, 산업 선교회 같은 모임은 여성 노동자들의 뜻을 모으고 의견을 교환하는 장이 되었다. 여기서 촉발된 여성 노동자들의 사회, 정치의식은 아직은 미약한 수준이었지만 차츰 그것을 자신의 처지와 생활, 공장노동에 적용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되었다. 같은 처지의 여성들이 결집할 수 있었던 것도 여성 노동자들의 열성적인 조합운동을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여성노동자를 억압했던 당시의 상황, 뿌리 깊은 가부장제적 여성억압과 승진 시 남녀차별 등 아직도 여러 부분이 확실히 개선되지 못한 점은 현재에도 시사점을 남긴다. 때문에 교과서 서술에 있어 당시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운동의 의의와 함

계 여성 문제에 대한 서술이 더욱 보충되어야 하는 것이다. 기존 교과서는 당시 여성 노동자운동에 대한 인식, 여성문제와 여성단체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하다. 여성노동자에 대한 자료와 참고문헌을 제시하여 1960-70년대 여성 노동자와 그 이후의 여성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시하는 일이 시급하다. 또한 교과서 내용을 보충하기 위한 별도의 보조자료 편성과 검정 교과서의 문제로 생각할 수 있는 일률적인 단원 편성을 재고하는 방법도 요망된다.

1970년대를 주도했던 여성노동운동, 그리고 동일방직의 노동조합 운동은 여성들이 수많은 중첩의 억압을 헤치고 일구어 낸 귀중한 한 경험으로 평가받아야 하는 동시에 현재에 와서도 여전히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되새겨보아야 한다.

참고문헌

<저 서>

- 강이수·신경아, 『여성과 일』, 동녘, 2001.
- 강현아, 『여성, 역사·노동·문화의 주체』, 경인문화사, 2003.
- 구혜근, 『한국 노동계급의 형성』, 창작과 비평사, 2002.
- 김광남외, 『한국근현대사』, 두산, 2005.
- 김인걸 외 편저, 『한국현대사강의』, 돌베개, 1998.
- 김한중외, 『한국근·현대사』, 금성출판사, 2005.
- 동일방직복직투쟁위원회, 『동일방직노동조합운동사』, 돌베개, 1985.
- 류승렬, 『뿌리 깊은 한국사 샘이 깊은 이야기』 7, 솔, 2003.
- 석정남, 『공장의 불빛』, 일월서각, 1984.
- 박수정, 『숨겨진 한국여성의 역사』, 아름다운 사람들, 2004.
- 신인령, 『여성·노동·법』, 까치사, 1985.
- 이옥지, 『한국여성노동자운동사』 1, 한울, 2001.
- 강인순, 『한국여성노동자운동사』 2, 한울, 2001.
- 이효재, 『한국여성운동-어제와 오늘』, 정우사, 1989.
- 이태호, 『최근노동운동기록』, 청사, 1986.
- 장하진, 『여성노동론』, 여성사, 1996.
- 정현백, 『노동운동과 노동자문화』, 한길사, 1991.
- 전순옥, 『끝나지 않은 시대의 노래』, 한겨레출판사, 2004.
- 주진오외, 『한국근현대사』, 중앙교육진흥연구소, 2005.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현대사의 재인식:1970년대 후반기의 정치 사회 변동』, 백산서당, 1998.

한국기독교사회문제 연구원, 『노동현장과 증언』, 풀빛, 1986.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여성노동과 평등』, 한국노동조합총연맹, 1991.
한국여성연구회 외, 『여성노동자와 임금』, 동녘, 1991.
한철호외, 『한국근현대사』, 대한교과서, 2005.

<논문>

박기남, 「여성노동자들의 의식변화과정에 관한 한 연구-1970년대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연세대학교대학원 석사논문, 1988.
방혜신, 「70년대 여성노동운동에서 여성특수과제 실현조건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논문, 1994.
정미숙, 「70년대 여성노동운동의 활성화에 관한 경험 세계적 연구-섬유업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1993.
김경희, 「한국여성노동조합의 출현」, 『경제와 사회』 43호, 1999.
김현미, 「한국노동운동의 담론분석을 통해본 성적제현의 정치학」, 『열린지성』 6, 1999.
이재은, 「생산직 여성노동자운동」, 『여성과 사회』 2, 1991.
정현백, 「여성노동자의 의식과 노동세계: 1970년대의 노동자 수기 분석을 중심으로」, 『여성』 1, 창작과 비평사, 1985.
조옥라, 「가부장적 기업구조와 여성노동운동」, 서강대 『사회과학연구』, 1994.
조은, 「가부장제와 경제:가부장제의 자본주의적 변용과 한국의 여성노동」, 『한국여성학』 2, 1986.
조순경외, 「여성노동과 성적통제」, 『한국여성학』 5, 1989.

<신문·잡지기사>

강준만, 「동일방직 똥물 사건, 1978년」, 『인물과 사상』 통권54호
2002.

박은식, 「5.16부터 유신시절까지 3: 한국의 여성노동운동」, 『여성』 278호
1990.

박정남, 「동일방직사건의 전말」, 『신동아』, 1984.

Abstract

1960s and 1970s of South Korea was the period not only of rapid economy development but also of the dictatorship of President Park Jung-hee and his administration. In those period, the Park administration projected industry development and economy progress through prompt industrialization and improvement of economy. Such rapid industrialization caused the increase of industry laborers' population, especially women laborers' population. Although their working hours were exceedingly long and their wage was much lower than that of men's, they served greatly for the development of South Korea's industry.

In 1960s, consciousness of women laborers' began to arise by the influence of some progressive church movements and/or educations from the night classes. And many women laborers started to organize labor movement at that time. This labor movement was focused on the struggle to gain the right to live. In 1970s, women laborers even led the stream of labor movement. But at present, their roles and their experiences are not validly evaluated. Their stories have been fully distorted and concealed, continuously.

The struggle of the 'Dong-il textile manufacturing Labor Union' has been quite well-known to the public for many reasons: the first woman president of the Union's branch, autonomous establishment of Labor Union by the women laborers themselves, company's cruel maneuver to breakdown Labor Union, the struggle against the

company to defend the Union, etc. In spite of the particular political, social limits which made women laborers' situation bad, the movement of the women laborers' was autonomous and active. Women laborers struggled against the governmental power, companies, social discrimination that suppressed their labor movement. The meaning of their movement might be turned out to be very significant when we reevaluate their activities.

Presently used history textbooks of Korea's modern/contemporary history deals with the economy development of the President Park administration in detail despite of the different point of each historical view. But there are not any part which explains the women laborers' movement of 1970s thoroughly. If history textbooks have very important role that is to provide some useful contents to help to build the upright historical view of the students, present history textbooks should be revised with more historical materials that can show possibilities of new interpretation. History that is mainly focused on the political economy could easily remove the minorities' experiences in the history. But we have to see the stories beside the mainstream and reevaluate the underestimated experiences. Women's labor movement in 1960s and 1970s should also be reevaluated in this kind of attitude. We will be able to understand the labor movement history of South Korea fully only after this reevaluation.